



모죽지랑가의 창작 동기와 정치적 배경

Motivation and Political Background of Mojookjiranggas Creation

**저자
(Authors)** 서정목
Suh, Chung-Mok

**출처
(Source)** [서강인문논총 37](#), 2013.08, 165-213(49 pages)

**발행처
(Publisher)**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Humanities research Institut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232334>

APA Style 서정목 (2013). 모죽지랑가의 창작 동기와 정치적 배경. 서강인문논총, 37, 165-213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 사문 화관
183.106.106.***
2021/07/02 16:54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모죽지랑가〉의 창작 동기와 정치적 배경*

서 정 목**

1. 서론
2. 향찰 해독
3. 孝昭王은 누구인가
4. 죽지랑과 김흠돌의 난
5.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鄉歌 모죽지랑가의 창작 동기와 정치적 배경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 노래는 得鳥가 竹旨郎 사후에 지은 輓歌이다.

이 노래 창작 시기의 孝昭王은 16살에 왕위에 올라 26살에 돌아가셨다. 여기에 관한 한 『삼국유사』의 기록이 옳고 『삼국사기』의 기록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효소왕은 太宗武烈王의 손자(神文王)과 외손녀(神穆王后) 사이에서 태어났다.

신목왕후의 아버지 金欽運은 『삼국사기』 ‘열전’의 金欽運과 동일인이다. 그는 태종 무열왕의 사위로서 655년 백제군과 싸우다 전사하였다. 이 때 그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다. 이 딸은 28살도 더 되었을 683년에 신문왕과 혼인하였는데 그 전에 그들에게는 세 아들[孝昭王, 寶叱徒太子, 聖德王]이 있었다.

이 아들들이 신문왕의 國舅 金欽突의 亂의 원인이다. 이 난으로 일부 화랑도 출신 귀족들이 誅戮되고 逐出되었으며 화랑도가 폐지되었다. 이것이 신라 귀족 사회의 분열의 원인이 되어 국가 興亡盛衰에 영향을 미쳤다. 이 노래는 화랑도 출신 귀족인 죽지랑이 화랑도가 폐지되고 동료들이 축출되는 정치적 상황에서 불우하게 만년을 보내고 효소왕 치세 초반에 이승을 떠난 후에, 得鳥가 죽지랑의 초상 날 장례 때나 대상 날 탈상재 때에 사용할 輓歌로 지은 것으로 보인다. 이 노래가 『三國遺事』 ‘紀異篇’에 실려 있는 것은 이러한 사연이 있기 때문이다.

* 이 연구는 서강대학교 특별 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삼국사기』 ‘신라 본기’는 이와 관련된 기록에서 누락이 있고 소루한 편이다. 이에 반하여 『삼국사기』 ‘열전’ 金歌運 조는 ‘본기’의 기록이 보여 주지 못하는 정보를 실고 있어 그의 외손자들과 관련된 史實에 빛을 비추고 있다. 그 빛은 모죽지랑가의 정치적 배경과 창작 동기를 밝히려는 우리의 추리에도 주요 열쇠가 되어 주었다.

주제어 : 모죽지랑가, 모죽지랑가의 정치적 배경, 모죽지랑가의 창작 동기, 죽지랑, 득오, 실오, 효소왕, 신문왕, 신목왕후, 성덕왕, 김흠돌의 난, 김흠운

1. 서론

이 글은 모죽지랑가의 창작 동기와 배경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¹⁾

이 노래는 得鳥(‘一云 谷’, ‘得鳥失, 得鳥谷’)으로 표기하기도 함, ‘谷’의 옛訓은 ‘실’, ‘실-내>시-내(溪) 참고)가 竹旨郎 사후 초상 날 장례 때나 大祥 날 脫喪齋를 맞아 輓歌로 지은 것으로 보인다.²⁾

실오가 이 노래를 지은 시기의 孝昭王은 16살에 왕위에 올라 26살에

1) 본고를 인문과학연구소에 넘기기 직전, 2013년 7월 10일 필자는 조범환 교수의 배려로 몇 편의 역사 논문을 빌려 볼 수 있었다. 이종욱(1986), 신중월(1987), 조범환(2010), 김태식(2011) 등이 그것이다. 이 논저들을 몇 곳의 각주를 통하여 반영하였다. 이 중 김태식(2011)은 필자가 30년 동안의 향가 강의를 통하여 도달한 본고의 논지와 거의 유사한 견해를 보이고 있어서 반가웠다. 그러나 김태식(2011)도 역시 효소왕이 6살에 왕위에 올라 16살에 승하하였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많은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그대로 따라 이 시기의 중요 일들을 신목왕후가 수렴청정하며 처리한 것이라고 보고 그를 母王으로 보는 데에까지 나아갔다. 『삼국유사』의 ‘臺山 五萬 眞身’ 조의 細注를 왜 무시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주장이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지만 일일이 대조하는 것은 다음으로 미루고자 한다. 인문학의 통섭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조범환 교수의 후의에 감사드린다.

2) 이 노래의 창작 시기, 『삼국유사』 기록의 검토와 노래가 실려 있는 외형상의 특징, 노래의 형식, 내용, 해독상의 문제 등은 서정목(2013a)를 참고하기 바란다. 그곳의 논의에 따라 이하에서 이 이름은 ‘실오’로 표기한다.

돌아가셨다. 여기에 관한 한 『삼국유사』의 기록이 옳고 『삼국사기』의 기록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삼국사기』 신문왕 조는 효소왕의 출생 시기에 대하여 의심스러운 기록을 남기고 있고 寶叱徒太子, 聖德王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다. 효소왕은 太宗武烈王의 손자(神文王)과 외손녀(뒤틀날의 神穆王后) 사이에서 태어났다.

신목왕후의 아버지 金欽運은 『삼국사기』 ‘열전’의 金欽運과 동일인이다. 그는 태종무열왕의 사위로서 태종무열왕 2년(655년) 고구려, 백제의 연합군과의 陽山 아래 전투에서 야습한 백제군과 싸우다 전사하였다. 이 때 그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다. 이 딸이 나이가 28살도 더 되었을 신문왕 3년(683년)에 신문왕과 혼인하였는데 그 전에 이미 그들에게는 세 아들[孝昭王, 寶叱徒太子, 聖德王]이 있었다.

이 아들들이 신문왕의 國舅 金欽突의 亂의 원인이다. 이 난으로 인한 일부 화랑도 출신 귀족들에 대한 誅戮과 逐出, 그리고 화랑도 폐지가 신라 귀족 사회의 분열의 원인이 되어 국가 興亡盛衰에 영향을 미쳤다. 이 노래는 화랑도 출신 귀족인 죽지랑이 화랑도가 폐지되고 동료들이 축출되는 정치적 상황에서 불우하게 만년을 보내고 효소왕 치세 초반에 이승을 떠난 후에, 죽지랑과 특별히 돈독한 사이였던 실오가 죽지랑의 초상 날 장례 때나 대상 날 탈상재에 사용할 輓歌로 지은 것으로 보인다. 이 노래가 『三國遺事』 ‘紀異篇’에 실려 있는 것은 이러한 사연이 있기 때문이다.

『삼국사기』 ‘신라 본기’는 이와 관련된 제반 기록에 있어서 누락이 있고 소루한 편이다. 이에 반하여 『삼국사기』 ‘열전’ 金欽運 조는 암시적으로 ‘본기’의 기록이 보여 주지 못하는 정보를 신고 있어 그의 외손자들[효소왕, 寶叱徒太子, 성덕왕]과 관련한 史實에 빛을 비추고 있다. 그 빛은 모죽지랑가의 시대적 배경과 창작 동기를 밝히려는 우리의 추리에도 밝은 빛을 비추어 주었다.

이 글의 본문 논지 전개에서는 필사본 『화랑세기』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각주에서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는 볼 수 없는 인간 관계에 대한 정보를 이종욱(1999)를 참고로 하여 제공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필자의 근본 논지는 모죽지랑가가 죽지랑 사후 초상 날 장례식이나 대상 날의 탈상재에 사용된 만가로서, 그 해독은 살아 있는 죽지랑의 모습을 그리고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죽지랑의 모습(그것이 시적 화자의 마음 속의 모습이든 영정의 모습이든)을 추모하고, 정치적 현실의 간난 속에서도 죽은 상관에 대한 신의를 지키면서 살아가려는 결의를 다지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수적으로, 또는 더욱 중요하게도 필자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만으로도 모죽지랑가의 시대만큼은 『화랑세기』가 그리고 있는 세상과 똑 같이 재구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세월이 좀 더 흐른 후에야 밝혀질 것이다.

2. 향찰 해독

2.1. 해독은 거의 완성되었다

모죽지랑가의 원문과 김완진(1980, 1985)의 해독은 (1)과 같다.³⁾ 김완진(1980, 1985)은 현재로서는 국어학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최신 해독으로, 광

3) 이 밖에도 양주동(1942/1965/1981), 小倉進平(1929)를 비롯하여 여러 다른 해독안이 더 있다. 특히 小倉進平 박사의 ‘많은 잘 된 것은 시령 위에 올려 놓아 두고 그릇된 부분만 골라서 지적, 비난함으로써 마치 대부분이 틀린 것처럼 거론함이 과연 학자의 옳은 태도일까?’라는 독후 소감에 대한, “그의 다투는 바가 다만 ‘한字, 半字 사이에 있’는 것이다[渠所爭只在—字半字之間也]”라는 취지의 답변(양주동, 1942/1965/1981 : 892)에서 보듯이, 향찰 해독은 한 자, 반 자의 차이를 논의하는 것이다. 여러 해독의 차이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양희철(1997)이 참고된다.

복 후 국어학계의 연구 결과가 총망라된 것이어서 국어학계에서는 가장 신뢰받는 해독이다. 이 노래에 대한 대강의 이해를 돕는 데 꼭 필요하다고 보아 제시하였다.⁴⁾

(1) 원문과 김완진(1980, 1985)의 해독

去隱春皆理米	간 봄 문 오리매
毛冬居叱賜哭屋尸以憂音	모돌 기스샤 울막롤 이 시름
阿冬音乃叱好支賜烏隱	두던 드롭곳 도흐시온
兒史年數就音墮支行齊	즈시 히 헤나삼 헐니저
目煙廻於尸七史伊衣	누늬 도랄 업시 더웃
逢烏支惡知作乎下是	맛보기 엇디 일오아리
郎也 慕理尸心未 行乎尸道尸	郎이여 그릴 므스미 (죽) 녀을 길
蓬次叱巷中宿尸夜音有叱下是	다보깃 굴형히 잘 밤 이사리

이 해독이 발표되자 ‘이 노래의 해독에 대해서는 후학들이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현재의 국어학 수준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하였고, 해결하지 못한 것은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한 그 해독에 긴 세월과 많은 노력이 더 필요할 것이다.⁵⁾ 이 글에서 새로운 해독을 시도하기보다는 문헌에서 이 노래와 관련되는 史實들을 찾아내어 창작 동기와 배경을 분명히 함으로써, 시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는 것이 옳은지, 그리고 각 구절을 어떻게 해독하는 것이 좋은지를 논의하는 데 그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4) 이 노래의 해독은 김완진(1979)에 1차 발표되어, 김완진(1980)에 실린 뒤에, 다시 김완진(1985)에서 2구와 3구가 상당히 변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여기서는 김완진(2000)에 실린 1985년의 최종 해독을 따랐다.

5) 안병희(1987/1992: 166~67)는 “중세 국어 및 고대 국어와 借字表記에 대한 학계의 연구 성과를 수렴하여 현재로서는 완벽하다고 할 해독을 보인 업적도 있다. 양주동(1942/1965)와 김완진(1980)이 그것이다.”라고 하였다.

2.2. 두 구가 망실된 10구체 향가이었을 것이다

모죽지랑가의 작품 내용과 형식에 대한 문학적 검토, 창작 시기에 관해서는 이 글의 자매편인 서정목(2013a)에서 자세하게 논의하였다. 그 글의 핵심 논의는 8구만 남아 있는 모죽지랑가가 사실은 8구체 향가가 아니라 그 시기 다른 향가들처럼 10구체였으며 ‘기쁨도 슬픔도 모두 잊고 이 그림 하나로만 남으셨구려’ 정도의 의미를 가져야 하는 제3, 4의 두 구가 망실된 輓歌라는 것이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서정목(2013a)에서의 논의 결과 필자가 최종적으로 도달한 모죽지랑가의 모습을 현대국어로 적으면 (2)와 같다.

- (2) 간 봄 못 올 것이므로
 못 계서서 울어마를 이 시름
 기쁨 슬픔 다 잊고
 이 그림 하나로만 남으셨구려⁶⁾

두덩따름 좋으신 모습
 해를 헤아려 나아갈수록 험어가는데
 눈의 돌림 없이
 저 분을 만나보기 어찌 이루리(오)

냥이여, 그대 그리는 마음의 (모습이) 갈 길
 쑥대 우거진 굴형에 잘 밤 있으리(이다)

6) 밑줄 그은 부분은 망실되었다고 추정한 두 구이다.

3. 孝昭王은 누구인가

3.1. 그는 몇 살에 왕이 되었는가

『삼국유사』의 ‘효소왕대 죽지랑’ 조에는, 大王이 ‘익선의 죽지랑 모욕 사건’을 듣고 모랑리 출신들을 관서와 종교사에서 쫓아내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앞에 朝廷 花主가 이 ‘익선의 죽지랑 모욕 사건’을 듣고 익선을 잡아 오려 하였으나 도망가서 익선의 장자를 잡아와서 성 안의 못에서 그 더러움을 씻기다가 열려 죽었다고 되어 있다.⁷⁾ 그런데 이 대왕이 바로 효소왕이다. 효소왕이 왕위에 있을 동안 이 사건이 일어났고, 죽지랑도 효소왕대에 죽었고, 실오가 모죽지랑가를 지은 때도 효소왕대라고 하는 것이 기록과 가장 부합할 것이다. 안 그러면 ‘효소왕대 죽지랑’이라는 『삼국유사』의 제목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⁸⁾

7) 『삼국유사』에는 한 번 나오는 이 ‘花主[꽃니림]’가 무슨 말인지 과거에는 알 수 없었다. 1990년대까지 필자는 효소왕에 앞서서 익선의 장자를 잡아와서 성 안의 연못에서 씻기다가 열려 죽이는 일을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지닌 여인은 신목왕후이거나 그 직할에 있는 여인일 수밖에 없다고 추정하여 가르쳤다. 1999년 이후부터 고려하기 시작한 필사본 『화랑세기』에는 화주가 풍월주의 부인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효소왕 치세인 이 시기는 김흠돌의 난으로 자의왕후가 화랑도를 폐지한 후이다. 화랑도가 부활된 이후에는 풍월주는 없고 국선으로 대체되었다. 국선의 부인도 화주라고 하였는지 궁금하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도 없고 실사 그러했다 하더라도 국선의 부인이 조정 화주라고 지칭될 리가 없다. 조정 화주는 신목왕후에 버금가는 권력을 가진 강력한 여성 인물이어야 한다. 그러면 자연히 그 여인은 과거의 풍월주의 부인으로서 남편이 풍월주일 때 화주라는 칭호를 얻어서 이때까지 그 칭호로 불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27세 풍월주 김흠돌의 난으로 26세 진공부터 32세 신공까지 거의 모든 풍월주가 멸문이 되었다. 23세 풍월주 근관은 嬪子 1명과 함께 (아마도 그 아들은 김흠돌의 사위 30세 풍월주 천관일 것이다) 자진할 것을 명 받았다. 김흠돌의 난으로 32세 풍월주 신공에서 화랑도가 폐지되기 전까지의 풍월주로서 김흠돌계가 다 축출된 이후에도 살아남아 있었을 반김흠돌계 풍월주는 28세 풍월주 김오기[김대문의 妃]이다. 그 김오기의 부인인 운명이 이 화주임에 틀림없다. 운명은 자의왕후의 동생이다. 언니 자의왕후가 효소왕의 할머니이었으니 최고위 권력층이다. 역사의 흐름에 미치는 권력 여인들(power women)의 힘이 드러나 보이는 장면이다.

필자의 궁금증은 엉뚱하게 다음과 같은 물음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도대체 효소왕 몇 년쯤에 ‘익선의 죽지랑 모욕 사건’이 발생한 것일까? 이 사건과 노래는 어떤 연관을 맺는가? 이 사건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된 죽지랑과 실오는 몇 년이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였을까? 실오는 어떤 의무나 책임을 지고 이 노래를 지은 것은 아닐까?) 죽지랑의 사후, 필자가 이 노래가 지어진 날이라고 본 초상 날이나 대상 날은 효소왕 몇 년 몇 월쯤일까? 그리고 이 노래가 서라벌, 나아가 통일신라 강역에 들불처럼 번져나가 유행하는 데에는¹⁰⁾ 얼마나 많은 시일이 걸렸을까?

효소왕은 재위 10년만에 이승을 떠났고, 그의 아버지인 신문왕도 11년

-
- 8) 이종욱(1986 : 223)은 ‘익선의 죽지랑 모욕 사건’은 죽지랑이 화랑으로 있던 진평왕 말년 또는 늦여야 善德王 초년경이라고 보고, 실오가 젊어서 화랑으로 모시던 죽지랑 사모하여 노래를 만든 시기는 효소왕대라고 보았다. 이 사건과 노래가 전혀 별개의 일처럼 되는 것이다. 필자는 ‘익선의 죽지랑 모욕 사건’이 효소왕대에 일어난 일이라고 본다. 그리고 필자는 젊어서 화랑도에서 같이 활동하던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도 일정한 세력을 형성하여 私兵 같은 집단을 이루고 있었거나, 적어도 선후배들이나 상하간의 동문회 비슷한 조직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효소왕대에 실오가 이름을 올린 ‘風流黃卷’은 죽지랑 부대 은퇴자들이나 私兵들의 명단이라고 해석한다. 모량리인 원측법사(612년~696년)에 대한 승직 수여가 문제되었을 시기는 『삼국사기』 ‘신라 본기’ 효소왕 즉위년인 신문왕 사후 692년 8월 이후에 귀국하여 천문도를 효소왕에게 바친 그의 제자 道證과 관련되어 있다. 이때 81세의 원측법사는 해동 고덕으로 당 나라에서 측천무후의 ‘여불존승’을 받고 있었다(조명기(1949) 참고). 이 문제는 별고에서 논의한다.
- 9) 1960년대까지도 장례식에서 상여 뒤에는 만가를 적은 輓章이 휘날렸으며 웅만한 집안에선 초상 때 고인과 친분이 있는 분들이 보내온 輓歌(또는 輓詞, 輓詩)를 조위 방명록과 별권으로 묶어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었다. 필자는 모죽지랑가가 그 시대의 만가의 대표작으로 문헌에 기록되어 일연선사에게까지 전해져 온 것으로 상상한다. 이 노래의 유행과 관련하여 月城에 큰 변란이 있어 신목왕후와 효소왕이 시해되는 사건이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래야 이 노래가 『삼국유사』 ‘기이편’에 실린 까닭이 이해된다.
- 10) 『삼국유사』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 조에서 경덕왕이 충담사에게(王曰) ‘짐이 일찍이 듣기로 그대가 기과랑을 찬미한 사늬가가 그 뜻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朕嘗聞師讚者婆郎詞腦歌其意甚高是其果乎?],’ 대답하여 말하기를[對曰] ‘그러하옵니다[然].’를 보면 뜻이 높은 노래는 입으로 입으로 전해져서 임금의 귀에까지 전해졌음을 알 수 있다.

간 재위하고 이 세상을 떠났다. 10년 사이에 저 사건과 이 노래가 위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적어도 효소왕 초기에 ‘익선의 죽지랑 모욕 사건’이 일어났어야 그나마 설명이 되는데 도대체 효소왕은 몇 살에 모랑리인들을 통째로 관직과 승직에서 축출하는 일을 명한 것일까?

그런데 효소왕은 불과 6살에 왕위에 올라 16살에 이승을 떠난 비운의 왕으로 파악되었다. 그 어린 나이에 무엇을 안다고 모랑리인들을 모두 관직에서 내쫓고 승직도 갖지 못하게 했다는 말인가? 누가 뒤에 있는 것일까? 母后가 한 일일까? 모후는 화주와 더불어 익선의 장남을 셋기다가 열려 죽이는 일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3.2. 신문왕의 즉위와 혼인

신문왕은 즉위 초 681년에 빙부인 김흠돌의 난을 꺾어 김흠돌을 주살하고 왕비인 김흠돌의 딸을 폐비시키는 비운을 겪는다. 도대체 사위가 왕이 된 직후에 빙부가 반란을 일으켜 딸이 폐비되게 하는 일이 있었다니... 여기에는 비상한, 특별한 문제가 들어 있을 것이다.

전 왕비를 폐비시킨 신문왕은 즉위 3년(683년)에 金欽運의 딸을 새로 왕비로 맞이한다. 이 왕후가 신목왕후이다. 필자는 자연스레 도대체 김흠운이 누구이기에 딸을 왕비로 들이는가가 궁금해졌다. 그리고 김흠운의 딸은 누구이기에 왕비가 폐비된 지 3년 뒤에 겁 없이 이 무서운 세계로 후비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온다는 말인가? 이 혼인은 무엇이 특별하였던지 왕실에서 보낸 예물이 『삼국사기』에 (3)처럼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로부터 9년 후 신문왕은 즉위 12년(692년)에 승하하고 효소왕이 즉위하게 된다.

신문왕이 새 왕비를 맞이하는 683년, 이 대목의 『삼국사기』 기록은 (3)

과 같다. 그리고 (4a)에서 보듯이 신문왕 7년(687년) 2월에 원자가 탄생하였고 (4b)처럼 신문왕 11년(691년)에 이흥을 태자로 책봉하였다.

(3) 신문왕 3년(683년), … 一吉滄(7등관명) 金欽運 少女를¹¹⁾ 들여 부인으로 삼기로 하고[納一吉滄金欽運少女爲夫人], 이찬(2등관명) 文穎과 波珍滄 三光을 보내 기일을 정하고,¹²⁾ 대아찬 智常으로 하여금 납채를 보냈는데 비단(幣帛)이 15수레이고 쌀, 술, 기름, 꿀, 간장, 된장, 말린고기, 젓갈[米酒油蜜醬豉脯醢]이 135수레이고, 조곡[租]이 150수레이었다. 5월 7일에 이찬 문영과 개원을 김흠운의 집으로 파견하여 부인으로 책봉하고 그날 묘시에 파진찬 대상, 손문과 아찬 좌야, 길숙 등을 파견하여 각기 그 처량과 함께 양부, 사량부 두 부의 부녀 30 명씩으로 …

(4) a. 신문왕 7년(687년) 2월, 원자가 탄생하였다. 이 날 날이 음침하고

11) 이 ‘少女’가 어떤 의미인지 문제가 된다. 작은 딸, 막내 딸, 어린 딸로 번역한 책도 있는데 그러면 큰 딸도 있다는 뜻이 된다. 김흠운의 딸이 둘 이상 있어서 한 명은 소명궁이 되고 다른 한 명이 신목왕후가 된다는 해석을 낳을 수도 있다. 그러나 『화랑세기』에는 소명궁이 태자[정명]과의 사이에 理恭殿君을 낳았고 자의왕후의 명에 의하여 동궁으로 들어갔다. 이 이가 나중에 신목왕후가 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김흠운의 출년 655년과 관련지으면 신문왕과 혼인한 683년에 28살 이상이어야 하는데 『삼국사기』는 왜 이 세 아이가 딸린 나이 많은 처녀를 ‘少女’라 했는지 후인들을 당혹스럽게 한다. 이 ‘少’자가 ‘之’자의 오식일 것이라는 이영호(2003 : 70, 주 92)의 의견을 존중한다.

12) 김흠들의 난에 연루된 화랑도의 과거 가야계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 김유신 장군의 아들 金三光이 김흠들의 난 뒤에도 견제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김유신 장군의 아들 파진찬 김삼광이 날을 받으러 간다. 김삼광이 이 일을 맡은 이면에는 김유신 장군을 중심으로 김흠운, 김흠돌이 어떤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 혼인의 중요한 연결 고리 하나가 김삼광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김흠운 집안과 김삼광 집안 사이에도 모종의 관계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단순히 ‘김흠들은 김유신 장군 계열의 가야파 세력이고, 김흠운 집안은 왕실 세력이다.’고 할 수 없는 까닭이 여기 있다. 김흠들이 김유신 장군의 사위로서 가야계의 대표적 인물일 것으로 생각되기는 하지만, 김흠들의 난으로 주류되는 인물들은 김흠들의 매부, 사돈, 사위, 둘째 부인 쪽의 처남 등 직접 난에 관련된 사람들이다. 첫째 부인 쪽의 처남인 김삼광은 난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어두우며 큰 우레와 번개가 쳤다.

- b. 신문왕 11년(691년) 3월 1일에 왕자 理洪을 태자로 삼고 13일에 죄수를 대사하였다.

- (5) 신문왕 12년(692년) 7월, 왕이 돌아가시므로 神文이라 시호하고 狼山 동쪽에 장사지냈다.

결혼식 내용은 자세하고 불필요한 사항을 많이 기록하였음에 반하여,¹³⁾ 왕자의 탄생이나 그 어머니, 형제들에 대한 기록은 너무 소략하다. 이대로라면 신문왕은 외동아들 하나를 누구에게서인지도 모르게 원자로 얻게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전해진 사료가 부족하여 소략해진 역사 기록이다. 아니면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 이 앞에는 왕자 탄생의 기록이 따로 없으므로 이 원자가 효소왕일 수밖에 없다. 효소왕이 아니라면 그의 동생인 다른 왕자가 태어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면 원자라는 말이 이상해진다.

이 (4a, b)의 기록은 지금까지 역사학계에서 의심해 볼 생각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4b)의 기록은 실제와 일치할 것이다. 신문왕이 1년 후에 돌아가실 정도의 처지였으면 서둘러 태자를 봉해야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4a)의 원자 탄생 기록은 이 기록을 위하여 꼭 필요한 기록이다. 탄생한 기록도 없이 왕자가 태자로 봉해질 수는 없는 일이다. 그 앞 어디에도 신문왕의 아들 탄생 기록이 없으니 어딘가에 이런 기록이 들어가야 한다. 신문왕 당시에 이런 기록을 만들었든, 그 후에 신라의 사관들이 했

13) 조범환(2010 : 12-14)는 이 성대한 의식이 신라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라 하고 왕비 집안의 위상과 신장된 왕권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내재해 있을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물론 그러한 뜻도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미 아들을 셋이나 두고 있어 실질적인 왕비 행세를 하고 있던 태종무열왕의 외손녀를 맞이해 오는 과정이라고 본다. 이 예물들은 30여년 전 전사한 김흠운의 미망인, 태종무열왕의 딸이자 문무왕의 누이인 신목왕후의 어머니가 안방을 지키고 있었을 고모집에 신문왕이 하사한 특별한 예물인 것이다.

든, 고려에 들어와서 했든, 논리상으로 태자를 봉하기 전에 그 왕자가 태어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일관되게 『삼국사기』는 효소왕의 나이에 대하여는 말하고 있지 않다.

3.3. 효소왕은 정말 6살에 즉위하여 16살에 승하하였을까

효소왕이 즉위한 해는 692년이다. 앞에서 본 대로 효소왕은 687년에 태어났으므로 6살에 즉위한 것이 된다. 『삼국사기』 효소왕대의 이 대목 기록은 (6)과 같다.

(6) 효소왕이 즉위하였다(692년). 왕의 이름은 理洪(理恭이라고도 함)으로 신문왕의 태자이며 그 어머니의 성은 김씨로 신목왕후인데 一吉浪 金欽運(欽雲이라고도 함)의 딸이다.

이 기록은 오랫동안 필자를 괴롭혔다. 『삼국사기』의 편찬자는 이러면 효소왕이 6살에 왕위에 오른 것이 된다는 것을 몰랐을까? 알았다면 좀 더 자세한 기록을 남겨야 하는 것 아닌가? 적어도 ‘나이가 너무 어려 모후가 섭정하였다’ 정도는 알려 주어야 기록다운 기록이라 할 것이다.¹⁴⁾

(7) 효소왕 9년(700년), ... 5월에 이찬 慶永이 모반하다가 죽고 中侍 順元이 이에 연좌되어 파면되었다.

(7)에서는 ‘慶永의 모반 사건’이 있었다. 이 모반 사건은 전모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왜냐하면 1942년에 해체 복원된 석

14) ‘惠恭王이 8살에 왕위에 올랐는데, 태후가 섭정하였다[王卽位年八歲太后攝政].’는 『삼국사기』의 기록이 참고된다. 효소왕이 6살에 왕위에 올랐고 신목왕후가 섭정하였으리라 하는 학설에 대해서는 조범환(2010 : 8-9)을 참고하기 바란다.

탑 속에서 발견된 ‘皇福寺 石塔 金銅舍利函記’에는 神睦王后가 700년 6월 1일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6월 1일 날짜까지 밝혀진 것이 특이하지만, 이 銘文은 성덕왕 5년(706)에 조성되었고 성덕왕의 어머니의 제삿날로 기록된 것이니 의심할 수 없는 정확한 날짜이다. 돌아가신 지 6년 남짓한 어머니의 제삿날을 잘못 기억하거나 잘못 적을 아들은 이 세상에 없다. 그렇다면 신목왕후는 700년 5월 29~30일쯤에 일어난 이 ‘경영의 모반 사건’에서 시해되었거나, 아니면 5월말쯤에 시작되어 며칠 간 계속된 이 ‘경영의 모반 사건’에서 다쳐서 며칠 후에 돌아가신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¹⁵⁾

이로부터 2년 후인 702년 7월에 효소왕이 돌아가셨다. 사인은 없지만 이 난의 후유증을 앓다가 승하한 것이 틀림없다.¹⁶⁾

- (8) 효소왕 11년(702년), 7월에 왕이 돌아가시므로 시호를 효소라 하고 망덕사의 동쪽에 장사지냈다. (주 : 『당서』를 보면 장안 2년(702년)

15) 이 ‘경영의 모반 사건’에 순원이 연좌되어 파면되었다. 순원은 역모에 연좌되었으나 죽임을 면하고 파면된 후에, 나중에 성덕왕 때 재등장한다. 순원은 두 번씩이나 왕비를 폐비시키고 자신의 두 딸 성덕왕의 2비 소덕왕후와 효성왕의 2비 혜명왕후를 들이는 힘을 발휘한다. 이후 순원은 성덕왕의 병부로서, 효성왕의 외조부 겸 병부로서, 경덕왕의 외조부로서 권력 실세가 되었다. 여기서 경영과 순원이 하나의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가설이 성립한다. 그러나 이들이 김흠돌과 같은 세력권이라 하기는 어렵다. 김순원은 자의왕후의 동생으로 김흠돌의 전성기에는 그와 가까이 했던 때도 있었다. ‘경영의 모반 사건’에도 관여되었으나 누나의 후광으로 면직되는 선에서 처벌이 끝난 것으로 보인다. 수수께끼의 인물이다.

16) 『삼국유사』의 ‘冥州 五臺山 寶叱徒太子 傳記’ 조에는 ‘淨神王의 太子 弟인 副君이 신라에서 왕위를 다투다가 죽임을 당하자’라고 함으로써 효소왕이 왕위 쟁탈전에 휩싸여 승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弟도 이상하고 副君도 이상한 말이다. 이 ‘왕위를 다투는 일’이 ‘경영의 모반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 저자는 이 弟를 성덕왕의 아우라는 뜻이라고 보아 효소왕이 성덕왕의 동생일 것이라고 하고, 신목왕후는 효소왕과 함께 시해되었을 것이라고 가르친 적도 있었다. 그러다가 ‘황복사 석탑 금동사리랑가’를 알게 된 뒤로는 두 사람의 죽음에 시차가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경영의 모반 사건’으로 신목왕후는 바로 또는 며칠 후에 돌아가시고 효소왕은 그때 다치거나 충격을 받아 2년 후에 승하한 것으로 수정하여 가르친다.

에 이훙이 돌아갔다 하였고 모든 『고기』에는 말하기를 임인(702년)에 돌아갔다 하였다. 그런데 『통감』에 말하기를 대축 3년(703년)에 돌아갔다 하였으니 이는 곧 『통감』의 오류이다.)

그런데 (8)의 그의 재위 마지막 해 기록을 보면 이렇게 자세할 수가 없다. 『당서』나 『고기』들은 모두 702년에 돌아갔다고 하는데 오직 『통감』만 703년에 돌아갔다고 하니 『통감』이 오류라는 주를 붙이고 있는 것이다.

1년 차이 난 한 자료의 오류를 주를 달아 기록하면서 (3), (4)에서는 신목왕후의 아버지 金欽運이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았고, 『삼국사기』 열전에서는 그 이름을 ‘歆運’으로 적어 동일인이라는 것을 알기 어렵게 하였으며, 원자가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 (6)에서는 몇 살에 왕이 되었는지 아무 정보도 주지 않고서는, 연대를 계산해 보면 그 왕자가 6살에 왕위에 올라 16살에 돌아가시는 것으로 처리하였다.¹⁷⁾

나아가 (9)를 보면 신목왕후는 효소왕의 동생 성덕왕을 낳은 것으로 된다. 언제 낳았을까? 기록은 없다. 신문왕이 돌아가신 10개월 안에 효소왕이 태어난 지 1년 지난 뒤 이후에 낳았어야 한다. 현재대로라면 성덕왕은, 효소왕 탄생인 687년 2월 더하기 1년쯤 하여 688년 2월에서부터 692년의 10월까지, 한 5년 정도의 기간 안에 출생해야 한다.

- (9) 성덕왕이 즉위하였다(702년), 왕의 이름은 흥광 ... 그는 신문왕의 둘째 왕자고 효소왕과 같은 어머니에서 난 아우다. 효소왕이 돌아가시므로 나라 사람들이 왕으로 세운 것이다. 당의 측천무후는 효소왕이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

그렇다면 즉위 시의 나이도 많아야 14살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성

17) 김태식(2011 : 66-72)가 이 기록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 기록을 의심하면서도 결론은 효소왕이 6살에 왕위에 오른 것으로 처리하였다.

덕왕도 오대산에 가 있다가 효소왕이 죽은 후에 왔으므로 14살에 왕위에 오를 정도로 어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성덕왕의 졸년은 『삼국사기』에는 737년, 『삼국유사』도 737년으로 일치한다.

3.4. 효소왕은 16살에 즉위하여 26살에 승하하였다

앞에서 본 대로 효소왕과 성덕왕의 탄생 기록과 즉위에 관한 『삼국사기』의 기록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편찬 당시에 뭔가를 빼고 끼워 넣고 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뺀 것은 신목왕후의 결혼 시의 자녀들에 관한 사정이고 끼워 넣은 것은 태자 책봉을 위한 원자의 탄생 기록이다. 아마도 『삼국사기』 편찬을 위한 자료 어딘가에는 효소왕과 성덕왕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기록이 이성적 판단을 뛰어넘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비정상적 상황이어서 짐작은 역사책에 기록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만큼의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아무튼 이 두 왕은 좀처럼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구름 속의 어린 왕들이었다.

『삼국유사』 왕력편에는 효소왕의 즉위 연대를 0진년으로 기록하고 재위 10년이라 했고, 성덕왕의 즉위년이 임인(702년)로 되어 있으니 0은 壬으로, 효소왕의 즉위년은 임인년보다 10년 전의 임진년(692년)이 틀림없다. 이는 『삼국사기』의 기록과도 일치한다. 두 왕의 즉위 연대와 몰년은 두 史書 모두 일치한다. 다만, 불분명한 것은 두 왕이 언제 태어나 몇 살에 왕위에 올랐고, 몇 살에 죽었느냐 하는 것이다. 즉 나이가 문제인 것이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6살에 왕위에 오른 효소왕은 어머니 신목왕후의 섭정 하에 8년 동안 그리고 어머니 사후 2년 하여 16살이 될 때까지 재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왕비를 맞이했는지 않았는지도 기록이 없고, 死因

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필자는 (7)에서 본 700년 5월의 ‘慶永의 모반 사건’으로 신목왕후가 700년 6월 1일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본다. 이로부터 2년 후인 702년 7월에 효소왕이 돌아가셨다. 사인은 없지만 이 난의 후유증을 앓다가 승하한 것이 틀림없다. 그만큼 700년 5월의 ‘경영의 모반 사건’은 月城에 큰 변화를 불러온 대변란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효소왕은 비운의 삶을 마감하였다. 그렇다면 불과 10살 정도의 어린이가 그런 큰 일을 겪었고 그런 정치적 이용과 배척의 술수 속에서 시달리며 어머니의 간섭을 받고 왕좌에 앉아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다는 말이 된다.

후사는 확실히 없어서 효소왕을 이어 왕위에 오른 이가 오대산에 가 있던 두 왕자 가운데 하나인 효명태자이다. 그런데 『삼국유사』에는 사람들이 두 왕자를 모시러 갔더니 寶叱徒太子는 울면서 돌아가지 않으므로 동생인 효명태자가 와서 즉위했다고 하였다.¹⁸⁾ 이 이가 성덕왕이다.

그런데 『삼국사기』가 일관되게 기록하지 않고 있는 이 두 왕의 나이를 신중하게 생각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삼국유사』이다. 『삼국유사』의 ‘臺山 五萬 眞身’ 조에는 細注 속에 (10)과 같은 기록이 있다.¹⁹⁾

18) 이 두 형제가 세상을 피하여 살기로 밀약하고[密約方外之志] 오대산으로 도망가서 숨어 버렸대[逃隱入五臺山]는 『삼국유사』의 기록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 각각 1000명의 무리를 데리고 가다가, 둘이서 몰래 오대산으로 숨어든 것이다. 혹시 다음에 보게 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속세를 떠나 승적을 가지고 살라는 신목왕후의 뜻이 작용한 것일까? 말이 1000명이지만 현대의 거의 1개 대대 병력을 거느리고 가는 것이 지금도 쉬운 일은 아닌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왜 寶叱徒太子는 궁에서 온 사람들을 피하여 울면서 돌아가지 않으려 했을까? 궁에 있을 때 무서운 경험을 한 것이 틀림없다. 너덧 살 때쯤 그가 겪은 피 비린내 나는 궁중 살육[김흠돌의 난]이 그에게 트라우마(trauma)로 작용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그 일을 두세 살에 겪었을 효명태자는 정신적 충격을 덜 받았을 것이고, 신목왕후는 정신적 장애가 있었을 寶叱徒太子를 오대산으로 가서 지내게 하면서 그 아우인 효명태자를 함께 가 있게 했다는 실제 같은 허구가 짜여 진다.

19) (10)의 세주 바로 위 주에는 ‘國史를 살펴보면, 신라에는 淨神, 寶川, 孝明의 세 부자에 대해 明文이 없다[按國史新羅無淨神寶川孝明三父子明文]. … 신룡이란 성덕왕이 왕위에

(10) 생각하건데 효조 또는 효소는 천수 3년 임진(692년)에 왕위에 올랐는데 그때 나이 16세이며 장안 2년 임인(702년)에 세상을 떠났으니 나이 26살이었다. 성덕왕이 이 해에 왕위에 올랐으니 나이 22살이었다[…按孝照一作昭以天授三年壬辰即位時年十六長安二年壬寅崩壽二十六聖德以是年即位年二十二 …].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왜 이렇게 서로 다른 기록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정말로 『삼국유사』는 믿을 수 없는 기록인가? 이 모순적인 두 기록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필자는 1990년대 중반까지의 강의에서는, 신문왕의 첫 왕비 세력과 신목왕후 세력의 갈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아, 『삼국사기』의 태자비가 오랫동안 무자하였다는 기록을 불신하고 寶叱徒太子와 성덕왕의 어머니는 김흠돌의 딸이고, 효소왕의 어머니는 신목왕후로서 그 왕자들의 어머니가 달랐다는 생각을 하였다.²⁰⁾ 그리하여 새 어머니 신목왕후의 혼인으로 왕궁에서 쫓겨난 두 왕자가 오대산에 가 있었고 효소왕 사후 그 중 효명태자가 돌아오는 것으로 보았다. 즉 성덕왕의 즉위는 김흠돌계의 컴백이고

오른 지 4년 되는 을사이다. 왕의 이름은 흥광이고 … 신문왕의 둘째 아들이다. 성덕왕의 형 효조의 이름은 이공인데, 이흥이라고도 하며 또한 신문왕의 아들이다. 신문왕 政明의 자는 일조이니 淨神은 아마도 政明, 神文이 잘못 전해진 것 같다.’고 하여 『삼국유사』의 편찬 시기에도 國史 등에 이 시대의 기록이 드물거나, 오류가 있거나, 누락이 있거나 하여 문제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여기서도 효소왕은 성덕왕의 형이라고 하였다.

20) 이러한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은 辛鍾遠(1987 : 122-23)이다. 그는 일연선사가 효소왕의 나이를 10살 올렸다고 보고 성덕왕의 나이 22세일 때 효소왕은 16세인 이복동생으로 보고 있다. 寶叱徒太子와 성덕왕은 김흠돌의 딸이 낳은 왕자로, 효소왕은 신목왕후가 낳은 왕자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신목왕후가 혼인 전에, 아니 김흠돌의 난 이전에 이미 효소왕, 寶叱徒太子, 성덕왕의 세 아들을 두고 있었다는 필자의 설명과는 다른 견해이다. 이 논문을, 본고를 인문과학연구소에 넘기기 직전 2013년 7월 20일 조범환 교수의 배려로 볼 수 있었다. 감사드린다. 조범환(2010 : 17)은 이 문제에 대하여 신종원(1987)과는 의견이 다르다고 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한다는 유보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필자는 『삼국유사』 기록의 신빙성뿐만 아니라 『삼국사기』 기록의 신빙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것까지 그 가능성 속에 들어 있기를 바란다.

그 뒤에 김순원이라는 막강한 세력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이러한 설명이 성립될 수 없음을 알았다. 그러기에는 성덕왕이 효소왕의 동모제라는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기록이 너무나 강력하였고 신문왕의 첫 왕비가 태자비로 있는 동안 ‘오랫동안 무자하였다’는 기록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더욱이 김흠돌의 난 이후로 김흠돌 세력의 컴백은 눈에 띄이지도 않았고, 김순원은 김흠돌계 이기는 커녕 오히려 반김흠돌계, 반가야계로서 효소왕, 성덕왕, 효성왕, 경덕왕 때까지 왕권 강화와 왕실 중심의 국정 운영에 앞장서는 온갖 사건의 배후로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효소왕, 寶毗徒太子, 성덕왕의 형제 순서는 伯, 仲, 叔으로 정리되는 것이 옳고, 그들의 어머니도 신목왕후로서 그들은 同母兄弟인 것이 옳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효소왕의 즉위년(692년)과 돌아가신 해(702년)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같다. 다만 차이 나는 것은 출생년도에 따른 나이 계산이다. 그러면 692년과 702년은 고정시키고 태어난 해가 언제인지, 즉 즉위할 때 몇 살이였는지로 논의를 모아 가야 한다.

『삼국사기』는 원자가 687년에 태어났다고 기록했다. 그러므로 효소왕이 6살에 즉위하고 16살에 돌아가셨다는 계산이 나온 것이다. 그런데 『삼국사기』는 효소왕의 나이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다.

『삼국유사』는 언제 태어났다는 기록은 없고, 무슨 근거에서인지, 그것도 깊이 생각하고 따져 본 뒤에 적은 것처럼 ‘살피건대, 생각하건대[按]’라고 한 뒤에 효소왕이 16살에 즉위하여 26살에 돌아가셨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692년에 16살로 즉위한 효소왕은 676년생이 된다. 그리고 702년에 22살로 즉위한 성덕왕은 680년생이 된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효소왕은 언제 태어났을까? 『삼국사기』는 687년에 태어났다고 분명히 기록했으니 객관적이고 명백한가? 『삼국유사』는 즉위년으로부터 환산하면 676년생이 되는데 이는 역사서가 아니고 ‘遺事’이니

까 객관적이지 않고 명백하지 않은 것인가? 『삼국유사』는 『삼국사기』를 옆에 두고 읽으면서 편찬되었는데 왜 정면으로 『삼국사기』의 기록과 상충되는 기록을 세주로 남겼는가? 차이 나는 햇수는 10년이다. 물론 6살에 즉위하였는가, 16살에 즉위하였는가도 정확하게 10년 차이가 난다. 이 차이가 나는 10년의 책임이 『삼국사기』에 있을까, 『삼국유사』에 있을까?

어느 쪽이 그릇된 것일까? 나이를 확실하게 말한 쪽은 틀릴망정 숨기는 것은 없다. 그러나 6살짜리가 왕위에 올라 16살까지 재위하면서 모랑리 출신 처벌과 같은 큰 일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하여 나이도 밝히지 않고 ‘누가 섭정했는지’도 밝히지 않은 것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

더욱이 효소왕이 직접 등장하는 아래의 두 이야기는 아무리 『삼국유사』가 설화를 적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의 나이에 대하여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삼국유사』 ‘기이편’의 ‘효소왕대 죽지랑’ 조 바로 앞의 ‘만파식적’ 조에는 신문왕 즉위 이듬해인 ‘임오년(682년) 5월 초하루(어떤 책에는 천수 원년(690년)이라 하였으나 이는 잘못이다) … 두 분 성인이 덕을 함께 하여 守城하는 보물을 내리시려 하오니 … 용이 검은 옥띠를 바치는지라 … 왕께서 이 대나무를 가져다가 피리를 만들어 부시면 천하가 화평해질 것입니다. … 이제 대왕의 돌아가신 아버님은 바다 속의 큰 용이 되시고 김유신 또한 천신이 되어 두 성인이 마음을 같이 하여 값으로 칠 수 없는 큰 보물을 내어 저로 하여금 바치게 한 것입니다. … 태자 理恭(즉 효소대왕)이 대궐을 지키다가 이 소식을 듣고 말을 달려와 … 말씀 드리기를 이 옥대에 달린 여러 개의 장식은 모두 진짜 용입니다 하였다. … 원편 두 번째 장식을 떼어 계곡 물에 담그니 즉시 용이 되어 하늘로 날아갔다. …’고 하여, 687년에 태어난 원자가 그보다 5년 전인 682년에 이미 태자가 되어 말을 타고 월성에서 감은사까지 달려와神通한 지혜를 발휘하는 것으

로 기록하고 있다. 물론 이 만파식적 기록이 허황한 것은 분명하지만, 효소왕의 탄생, 나이와 그의 행적에 수상한 점이 있는 것 또한 틀림없는 일이다.

그리고 『삼국유사』 ‘神呪篇’의 ‘惠通 降龍’ 조에는 신문왕 승하 직후 효소왕이 왕위에 오른 해의 일을 보여 주고 있다. 정공의 집 앞에 당 나라에서 쫓겨 온 毒龍이 의탁하여 살고 있는 버드나무가 있었다. 정공은 신문왕의 산릉을 만들기 위한 장례 길을 내려고 관원들이 이 버드나무를 베려 하자 나를 벨 수 있을지언정 버드나무는 베지 못한다고 버티었다. 이에 효소왕이 크게 노하여 정공을 베어 죽이고 그 집을 물어 버렸다. 그리고 왕녀가 갑자기 병이 들어 혜통에게 치료를 부탁했는데 나온 뒤에 정공과 친한 혜통이 정공을 용서해 주도록 하여 효소왕이 뉘우치고 정공의 처자에게 죄를 면해 주고 혜통을 국사로 삼았다고 되어 있다.

이 설화에서 주인공은 시종 효소왕이다. 그런데 그 일은 6살짜리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어머니가 섭정하였다면 ‘화주가 무슨 일을 하였다’처럼 ‘모후가 어찌하였다’로 기록될 만한 일이다. 王女도 정상적으로는 왕의 딸일 터인데 효소왕에게 어린 딸이 있었다고 상정되어야 옳다. 효소왕은 6살에 즉위한 것이 아니다.²¹⁾

그런데 그것은 다음 4.3에서 보게 될 金欽運에 관한 기록을 검토함으로써 풀렸다.²²⁾ 필자의 추리에 따르면 효소왕의 즉위 시와 승하 시의 나이에 관한 한 『삼국유사』의 기록이 옳고 『삼국사기』의 기록은 그르다. 『삼국사기』는 무슨 까닭에서인지 효소왕의 출생 연대를 달리 잡았고 신문왕의 왕자들에 대한 기록도 거의 무시하고 소략하게 처리하였다. 그리하여

21) 이 설화의 끝에 붙어 있는 信忠 奉聖寺에 대한 기록도 신충의 怨歌와 더불어 수수께끼 같은 사연을 남기고 있다.

22) 다음 4.3에서 보는 대로 김흠운이 655년에 전사했으므로 신목왕후는 그 이전 출생이어야 한다. 가장 늦추어 잡아도 655년생은 되어야 한다.

『삼국유사』의 기록과 불일치를 빚고 있다.

이렇게 하여 필자의 첫 의문은 풀렸다. 16살에서 26살 사이에 왕위에 있었던 효소왕이라면, 이제 모죽지랑가의 배경 설화 속에 들어 있는 일들이나 정공의 버드나무 절단 반대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관장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는 된다고 보아야 한다. 676년생인 효소왕이 만파식적을 얻을 때인 682년에는 7살 정도이니 말을 타고 달려와서 신통한 지혜를 발휘할 수 있었을가에 대한 판단은 물론 논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필자는 어느 정도의 윤색은 있었겠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4. 죽지랑과 김흠돌의 난

4.1. 죽지랑은 누구인가

신라사의 수수께끼, 신라 사회를 이해하기 어렵게 하던 역사적 사건 가운데, 모죽지랑가와 관련된 사건은 김흠돌의 난이다. 김흠돌과 모죽지랑가의 주인공 죽지랑은 어떤 관계인가? 이들은 화랑도 출신의 장군으로서 김유신 장군과 더불어 통일 전쟁을 수행한 사람들이다. 『삼국사기』에서 죽지랑의 이름이 보이는 곳을 뽑으면 (11)~(13)과 같다.

- (11) a. 진덕왕 3년(649년) 8월, 백제 장군 은상이 군사를 ... 7성을 함락 시키므로 왕은 대장군 김유신, 장군 진춘, 죽지, 친존 등에게 명하여 적을 막게 하였다. ... 군졸 8,980명을 참살하였으며 戰馬 10,000필을 노획하고 ...
- b. 진덕왕 5년(651년), ... 파진찬 죽지를 집사중시로 삼아 기밀사무

를 맡게 하였다. … 파진찬 김인문을 당 나라로 파견하여 … 숙위하게 하였다.

- c. 태종무열왕 8년(661년), … 장군 김순, 진흥, 천존, 죽지 등을 파견하여 이를 구원하게 하였는데 그들은 加尸兮津에 이르러서 …
- (12) a. 문무왕 원년(661년) 7월 17일, 왕은 김유신을 대장군, … 김인문, 진주, 흙돌을 대당장군으로 삼고, … 천존, 죽지, 천품을 귀당총관으로 삼고 … 軍官, 藪世, 고순을 남천주 총관으로 삼고 …
- b. 문무왕 3년(663년)에 백제의 여러 성에 있는 무리들이 물레 회복을 도모하여 그 거수는 두솔성(豆率城)에 웅거하여 왜국에 원병을 청하였다. 이에 대왕은 친히 유신, 인문, 천존, 죽지 등 장군을 거느리고 7월 17일에 토벌의 길을 떠나 --- (‘삼국사기’ ‘열전’ ‘김유신 중’)
- c. 문무왕 8년(668년) 6월 21일, 대각간 김유신을 대당대총관, … 각간 김인문, 흙순, 천존, … 대아찬 양도, 잡찬 진복, 개원, 欽突을 대당총관으로 삼고, 이찬 진순, 竹詣를 경정총관으로 삼고 … 잡찬 軍官과 대아찬 도유와 … 한성주행군총관으로 삼고 … 興元을 계급당총관으로 삼았다. … 왕은 일길찬 眞功을 파견하여 하례하였다. … 6월 27일 왕은 서울을 출발하여 당의 군영으로 향하였는데, 6월 29일에는 제도총관이 모두 출발하였다.
- (13) a. 문무왕 10년(670년) 7월, … 천존, 죽지 등은 7성을 공취하여 2,000명을 참살하였고 …
- b. 문무왕 11년(671년) 6월, 장군 죽지 등을 파견하여 … 백제 加林城으로 가서 … 당 나라 군사와 石城에서 싸워 5,300명의 목을 자르고 백제 장군 두 사람과 당의 果毅 여섯 사람을 사로잡았다.

(11a)에서 죽지랑은 김유신 장군과 함께 백제와의 전쟁에 참전하였다.

(11b)에서는 죽지랑이 집사중시를 맡아 기밀 사무를 관장할 정도로 신임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1c)에서는 죽지랑이 백제의 잔적들과의 싸움에서 고전하고 있는 아군을 구원하러 출전하였다.

(12a)에서는 태종무열왕의 마지막 해, 문무왕 원년(661년)에 김유신 장

군, 김흠돌, 죽지랑이 나란히 상하 관계로 임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12b)에서는 죽지랑이 김유신 장군과 함께 출전하였음을 볼 수 있고, (12c)에서 문무왕 8년(668년)에 김유신 장군, 김흠돌, 죽지랑이 함께 나란히 고구려 정벌 전쟁에 나섰음을 알 수 있다.

(13a)에서는 죽지랑이 큰 전공을 세웠음을 볼 수 있고, (13b)에서도 장군 죽지가 당 나라 군사와의 전쟁에 나서서 무려 현대의 2개 연대 규모의 병력을 격파하고 장군들을 사로잡는 대승을 거둔 것을 볼 수 있다. 죽지랑이 단위부대 사령관으로 출정할 정도로 강력한 지위에 있었음을 보여준다.²³⁾

『삼국유사』에서 죽지랑은 탄생 설화도 신비한 인물로서²⁴⁾ 진덕, 태종, 문무, 신문왕의 4대에 걸쳐 冢宰(큰 재상으로 아마 시중이나 상대등을 지칭할 듯

23) 박노준(1982 : 128~32)은 『삼국사기』 열전 김유신 전에 나오는 적손 김윤중이 성덕왕 때 대야찬이 되었을 때 왕의 친숙으로부터 질시를 받은 일, 혜공왕 15년(779년)에 김유신 장군의 무덤에서 들개바람이 일어나 미추왕릉으로 들어간 일과 『삼국유사』의 ‘미추왕 죽엽군’ 조에서 아마도 김유신 장군의 후손일 김용이 모반 사건(혜공왕 6년(경술년, 770년)으로 주살된 일 등을 근거로 통삼 직후부터 왕실은 화랑 출신, 특히 김유신 계를 거세하고 왕권을 강화하였으며, 그 와중에 죽지랑도 세력이 쇠락하여 익선 아간에게도 모욕을 당했다고 보았다. 또 박노준(1982 : 136~37)에서는 김흠돌의 난이 그와 함께 고구려 정벌 전쟁에 나섰던 죽지랑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24) 영주에서 단양으로 오는 길, 竹巖 험한 고갯길을 넘어 고향을 다녀오던 긴 세월, 신라 赤城碑(국보 제198호를 소개하는 안내문은 문장도 띄어쓰기도 엉망이었다.)를 보러 오르던 길, 금관가야 마지막 왕 仇亥王의 아들 武力 장군이 참가한 죽령 이북 고구려 땅 점령 과정, 진흥왕이 그곳 지역인인 ‘也余次’와 그 주변 인물의 복속을 칭찬하고 신라에 복속해 오는 고구려인에게는 대대로 후하게 대접하겠다는 내용을 새긴 비석. 무력 장군의 아들 김서현, 김서현의 아들 김유신 장군, 김유신 장군과 함께 국사를 논한 술종공, 술종공을 도와 길을 닦고 있는 거사, 삭주(춘천) 도독사 술종공이 꿈에 그 거사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고 아내도 같은 꿈을 꾸었고, ‘그 거사가 우리 집 안에 태어나려나 보다’라는 태몽 해석과 죽지랑의 탄생, 술종공이 거사의 무덤 앞에 세운 미륵상. 거기서 북쪽으로 10여 킬로미터, 軍看橋 너머 온달산성, 온달유물, 경덕왕이 자춘현(지금 영춘면 일대)으로 이름을 고치기 전의 고구려의 乙阿貳縣, 십여 차례도 넘을 단양 답사를 통하여 나는 잡힐 듯, 잡힐 듯 하는 죽지랑의 단서를 찾아 이 고구려와 신라의 전쟁터를 방황하며 소리 없이 북으로 흐르는 남한강을 오르내렸다.

함을 지내면서 삼국통일과 안정궐방에 기여한 사람으로 그려져 있다. 그런 그가 왜 만년인 효소왕대에 모량부 출신의 6등관 아간 익선에게 옛 부하였던 실오를 징발당하고 휴가도 얻어 주지 못하는 수모를 입었는가? 신문왕 시대와 효소왕 시대 사이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기에 그 사건을 경계로 죽지랑이라는 인물이 총재를 지내는 고위직으로부터 6등관인 아간 벼슬에게도 수모를 입을 정도의 쇠락한 모습으로 바뀌어 나타나는가?

그 사이에 존재하는 최대의 역사적 사건은 김흠돌의 난이고 이로 인한 화랑도의 폐지이다. 신라사 최대의 비극적 수수께끼 가운데 하나, 신문왕의 병부가 사위 신문왕이 왕위에 오른 그 해에 난을 일으켜 주살되는 김흠돌의 난, 그로 인한 폐비 사건을 『삼국사기』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4.2. 연속된 폐비 사건

필자는 향가를 가르칠 때마다 『삼국사기』의 (14)~(18)까지의 자료를 주고, 이를 토대로 상상의 나라를 펼쳐서 해마다 달라지는 虛構(fiction)을 짜고, 역사 소설 감이라는 명분 아래 학생들에게도 창의력 신장을 위한 소설을 쓰게 하였다. 필자의 그 수많은 허구들 가운데 하나를 대략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모죽지랑가는 신라가 당 나라와 연합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당 나라의 군대를 몰아내기 위한 대당 투쟁을 거치고 안정기에 접어든 시기의 작품이다. 그런데 그 작품에는 왜 전쟁이 끝난 후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어야 할 전쟁 영웅이 푸대접 받고 후배들에게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서러움을 주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것일까? 이 시기는 어떻게 특징지어져야 하는가?

모든 국가는 강력한 외부의 적과 맞서 있을 때 융성하고, 평화와 안정

이 오래 지속되면 내부적 갈등에 의하여 쇠락의 길로 향하게 된다. 신라에도 통일 전쟁과 대당 투쟁에서 전 국민이 힘을 합쳐 화랑도와 같은 특별한 조직을 통하여 인재를 배출하고 국가 총력을 기울여 전쟁을 벌이던 시대가 있었다.²⁵⁾ 김흠돌이 김유신 장군, 죽지랑 등과 함께 대고구려 전쟁에 참전하고 죽지랑이 대당 전투에 출전하여 승전하는 『삼국사기』의 (12)~(13)의 기록은 바로 이 시대의 끝자락을 보여 준다.

(12)에 나오는 欽突, 興元, 眞功은 신문왕 즉위년(681년) 김흠돌의 난 때 三奸으로 지칭되어 주살당하였고, 병부령이었던 軍官은 난의 모의를 미리 알고도 진압하지 않았다고 孀子 1명과 함께 자진할 것을 강요받았다. 이들은 화랑도 출신의 강력한 동질감을 가진 동지들이고 생사고락을 함께 한 전우들이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도래하여 백성들이 생업에 종사하며 ‘이밥에 고깃국을 먹는’ 안정된 삶을 살 것이라는 김춘추가 꿈꾸었던 태평성대가 왔는가? 그 기대와는 달리 찾아온 것은 태평성대가 아니라 치열한 정치적 갈등이 표출되는 시대이다. 외부의 강한 적과 대치하여 전쟁을 벌일 때는 튼튼한 힘의 원천이 되었던 국가 조직과 체제, 인재 배출의 경로가 이제는 오히려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과별 싸움의 근거가 되어 백성들의 비웃음을 사고 식자들에게 냉소적 오불관연의 태도를 지닐 수밖에 없게 만드는 비리와 우스꽝스러운 스캔들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드는 것이다. 그러한 시대는 (14)에 등장하는 두 영웅의 죽음과 함께 도래하는 모습을

25) 『삼국사기』 문무왕 11년(671년) 7월 26일의 大唐總管 薛仁貴의 서신에 대한 大王의 答書에는, 용삭 2년(662년) 정월 김유신이 고구려와의 싸움에 동원된 당 나라 군대를 먹일 군량 수송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瓠蘆河(현재의 연천군 장남면 호로그루 일대의 임진강변)에서 고전하고, 또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구 백제 지역의 백제 부흥군 진압 작전을 하고 있는 당 나라 군사를 먹일 군량을 웅진 지역으로 수송하였다. 이로 인하여 신라의 국고에는 식량이 비어 백성들이 초근목피로 연명하는데 웅진성에는 오히려 군량이 남아둔다는 등의 사연이 있다. 당 나라 군대를 끌어들이던 이 전쟁이 백성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었고, 온 나라의 총력을 동원한 일이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드러낸다.

- (14) a. 문무왕 13년(673년) 7월, 김유신이 돌아가셨다.
- b. 문무왕 21년(681년) 7월 1일, 왕이 돌아가셨다.

삼국통일의 대업과 당 나라 군대를 몰아내기 위하여 내부적 결속을 공고히 하였던 두 기둥, 김유신 장군과 문무왕이 8년의 시차로 돌아가시고 신문왕 즉위 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평화와 행복이 깃든 복지 사회가 대두되었는가? 이 평화롭고 안정된 축복받았어야 할 통일 시대에 나라 사회는 놀랍게도 반란이 연속되는 정치적 갈등에 휩싸이기 시작한다.

그 정치적 갈등은 전쟁에서 공을 세운 김유신 장군으로 대표되는 화랑도 출신 군부 귀족들과 왕족 출신 귀족들, 당 나라 유학을 거치거나 국내 교육을 거쳐 통치의 손발이 되는 문관 출신 귀족들의 권력 다툼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특히 첫째 세력과 둘째 세력의 갈등은 심각한 분열상을 빚으며 제로섬 게임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 권력 다툼은 결국 누가 왕이 되는가로 집중되게 되고 왕을 배출한 세력이 그렇지 않은 세력을 꺾박하는 상황이 되며, 이들 사이에는 항상 차기 왕은 우리 세력이 배출해야 한다는 경쟁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 경쟁 속에는 장기적 음모와 계략이 얽혀 있었고, 각 세력의 지파들은 합종연횡에 휘말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 (15) 문무왕 5년(665년), 왕자 政明을 태자로 세우고 ...

(15)는 문무왕 5년(665년)에 왕자 정명을 태자로 세웠음을 보여 준다. 정명태자는 문무왕 21년(681년)까지 무려 16년 간 태자 자리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삼국사기』 문무왕 시대의 기록에는 태자 정명의 역할

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다. 아버지 범민이 태자 시절 당 나라에 가서 외교 활동을 벌이고 외숙부 김유신 장군과 함께 대백제, 대고구려 전쟁에 종군하여 화랑도 출신 장군들과 함께 전우가 되었음에 비하여, 대고구려 전쟁, 백제 부흥군과의 전투, 대당 투쟁 등에 정명태자가 나선 일이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 사람은 도대체 그 위중한 역사적 전환기에 무엇을 하고 지냈을까? 태자와 관련된 기록은 ‘문무왕 19년(679년) 동궁을 창건하였다’가 유일하다.

신문왕과 관련된 『삼국유사』의 ‘萬波息笛’ 조나 感恩寺의 동해용 설화, 利見臺 등도 보기에 따라서는 허황된 힘에 의지하려는 나약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한다. 왕이 義를 가치로 하여 사회통합을 추구해 나가야지, 利를 가져다줄 용이나 찾아다니다니, 孟子 梁惠王章句가 부끄러울 일이다. 만파식적 설화에서 용이 한 말, 낮에는 들이고 밤에는 하나로 합치는 대나무, 두 대나무가 합쳐야 소리가 날 수 있으며, 문무왕과 김유신 장군이 뜻을 합쳐 저로 하여금 대왕께 바치게 하였다는 말도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그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부니 왜군이 물러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어쩌면 신문왕은 할아버지, 아버지와 함께 삼국통일의 위업을 이룬 화랑도 출신 군부 귀족들의 공로에 심리적 부담을 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정신 이상이라도 걸리지 않았으면 이견대에서 용을 보고, 감은사 법당 아래 용이 드나들게 구멍을 뚫어 절을 짓지는 않았을 것이다.²⁶⁾ 김흠돌의 난이 단순하게 보이지 않는 근본 까닭이다. 삼국통일을 이룬 화랑도 출신 장군들은 신하들의 공과 신하들에 대한 백성들의 신망을 두려워하는 못난 군주와 그 어머니를 만난 것일 수도 있다. 그 정신 이상을 보

26) 믿을 수 없는 기록이긴 하지만 신문왕 7년(687년) 2월에 원자가 태어나고, 4월에 대신을 조묘에 보내어 제사를 지낼 때 그 제문에 ‘요즘의 법도는 임금의 다스림을 잃었고 의는 하늘의 경계에 어긋나서 괴이한 성상들이 나타나고 화수가 빛을 잃으니 진전울퉁한 마음은 마치 깊은 골짜기에 떨어진 것과 같아옵니다’라고 하고 조상의 음덕을 빌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신문왕에게 마음으로부터 우리나라오는 충성을 바치기에는 그들의 힘이 너무 강력하였다.

왕은 누가 낳는가? 왕을 세우는 데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돌아가신 선왕의 왕비이다. 혹은 그 앞에 돌아가신 조부왕의 왕비일 수도 있다. 이 절대적 위치에 있는 왕비를 둘러싸고 이 시대에는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통일 신라에는 신문, 성덕, 효성, 경덕, 혜공 5대에 걸쳐 놀랍게도 다섯 번의 폐비 사건이 있었다. 혼인 여부가 불투명한 효소왕을 빼면 모든 왕이 왕비를 쫓아내었다. 『삼국사기』를 따라 차례대로 나열하면 (16)과 같다.

- (16) a. 신문왕 원년(681년), 왕비는 김씨로 소판 흠돌의 딸이다. … 뒤 에 그 부친이 난을 짓는 데 연좌되어 궁에서 쫓겨났다[妃金氏蘇判欽突之女 … 後坐父作亂出宮]. … 3년(683년)에 일길찬 김흠운의 少女를 부인으로 맞이한다[納一吉浪金欽運少女爲夫人].
- b. 성덕왕 3년(704년) 봄에 왕비로 들었던 김원태의 딸[納乘府令蘇判金元泰之女爲妃] 成貞(嚴貞이라고도 함)王后를 성덕왕 15년(716년)에 내보내고[出成貞王后, 이때 무슨 까닭인지 채단 500필, 전지 200결,租 10000석, 가택 1구를 사서 주었다.] 19년(720년) 3월에 이찬 순원의 딸을 맞아 왕비로 삼았다[納伊浪順元之女爲王妃](昭德王后).
- c. 효성왕 2년(738년)에 당에서는 사신을 파견하여 왕비 박씨를 책봉하였다. 효성왕 3년(739년) 3월에는 이찬 순원의 딸 혜명을 맞아 비로 삼았다(박씨 왕비의 폐비 여부는 알 수 없다).
- d. 경덕왕 즉위 시(742년)에 왕비는 이찬 순정의 딸이었는데, 2년(743년) 4월에 서불한 김의충의 딸을 맞아 왕비로 삼았다.²⁷⁾

27) 이것은 『삼국유사』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 조의 ‘왕은 옥경의 길이가 8(촌)이었는데 아들이 없어 폐하고 사랑부인으로 봉하였다. 후비 만월부인은 시호가 경수태후인데 의중각간의 딸이다.’와 동일한 내용이다. 모처럼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이 내용상으로는 일치한다.

- e. 혜공왕 16년(780년) 마지막 기록, 원비 신보왕후는 이찬 유성의 딸이고 차비는 이찬 김장의 딸인데 그 입궁 연월은 역사가 없어 버렸다[元妃新寶王后伊浪維誠之女次妃伊浪金璋之女史失入宮歲月].(폐비인지 사망인지 불분명)

왜 폐비 사건이 일어났을까? 왜 이미 있던 왕비를 내보내고 새 왕비를 들이는가? 그 이유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다섯 번의 폐비 사건 중, 『삼국유사』의 기록을 보조적으로 사용할 때 ‘無子하여’라고 한 경덕왕의 경우뿐이다. 그런데 이 폐비 사건들에는 順元이라는 이름이 두 번 등장한다. 한번은 성덕왕의 원비 김원태의 딸 成貞王后를 내보내고 순원의 딸 炤德王后를 왕후로 들였다. 두 번째는 효성왕의 원비 박씨가 2년에 왕비로 책봉되었는데 3년 3월에 또 순원의 딸 惠明王后을 왕비로 들였다.

필자는 여기서 김원태-대-김순원이라는 대립 구도를 설정하고 많은 문제를 이 틀을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폐비 사건은 권력 구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그 핵심은 누가 자기의 딸을 왕비로 들여 그 딸이 낳은 외손자가 태자로 책봉되고 다음 왕위 계승권을 가지는가로 집중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김흠돌의 난은 단순한 난이 아니다. 亂이 다 그렇지만 이것은 왕위 계승권을 둘러싼 치열한 정쟁이 빚어낸 갈등이다. 딸을 왕비로 들인 사람은 외손자가 왕이 되는 꿈을 품고 그 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고, 외손자가 태자가 되는 데에 목숨을 거는 것이며,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때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울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悲願이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으니 이도 하늘의 뜻이런가?

김흠돌의 난과 관련된 『삼국사기』의 기록은 (17)과 같다. 번잡하지만 상황을 파악하기 좋게 길게 인용하였다.

- (17) a. 신문왕이 즉위하였다(681년). 그 이름은 政明(明之라고도 함, 자는 일조)로 문무왕의 장자며 어머니는 慈儀王后다. 비는 金氏로서 蘇判(3등관명) 흠돌의 딸이다. 왕이 태자로 있을 때 비로 맞았으나 오래도록 아들이 없었고, 뒤에는 그의 부친이 난을 일으키는 데에 그가 연좌되어 궁에서 쫓겨났다[王爲太子時納之久而無子後坐父作亂出宮]. 왕은 문무왕 5년에 태자가 되었다가 이때 이르러 왕위를 계승하니 ….
- b. 신문왕 원년(681년) 8월 8일, 蘇判 김흠돌, 波珍滄(4등관명) 興元, 大阿滄(5등관명) 眞功 등이 모반하므로 이를 죽였다. 왕의 하교 “… 敵首 흠돌과 흥원과 진공 등은 그 지위가 재능으로 오른 것도 아니고, 그 직위는 실은 선왕의 은총으로 올라간 것이지만 … 악한 무리들이 서로 도와 기일을 정한 후 난역을 하려 하였다. … 24일 동안에 죄수들은 탕진되었다. 병부령인 伊漣軍官은 … 적신 흠돌 등과 더불어 교섭하여… 군관 및 嬖子 1명을 자진하게 한다.”

(17a)에서는 신문왕이 문무왕과 자의왕후의 장자이며 그 비는 김흠돌의 딸임을 보여 준다. 왕비가 태자비이던 시절 오래도록 아들이 없었다. 그러다가 부친이 난을 일으키는 데에 (왕비가) 연좌되었기 때문에 폐비되었다. 난이 먼저 있고 폐비된 것이지 폐비가 되고 난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없다고 폐비되고 그에 반발하여 난을 일으킨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김흠돌 난의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다.

(17b)를 보면 김흠돌이 난을 일으킨 원인이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김유신 장군이 죽은 지 8년, 사위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김흠돌은 흥원과 진공을 데리고 모반하다가 죽었다. 왕의 하교를 보면 ‘敵首 흠돌과 흥원과 진공 등은 그 지위가 재능으로 오른 것도 아니고, 그 직위는 실은 선왕의 은총으로 올라간 것이지만 …’이라 하여 이들이 문무왕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음을 알 수 있다. 문무왕의 외척, 즉 문명왕후의

친정, 김유신 장군 집안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리할 수 있다. 김흠돌은 김유신 장군, 죽지랑과 함께 대고구려 전쟁에 참전한 화랑 출신 장군이다. 그는 김유신 장군의 사위로서 문명왕후의 각별한 총애를 받은 군부 출신 귀족으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²⁸⁾

도대체 김흠돌은 왜 반란을 일으킨 것일까? 새로 왕이 되는 신문왕이 사위이고 앞으로 태어날 외손자가 태자가 되어 후계 왕이 될 것인데 무엇 때문에 평지풍파를 일으켜 자신도 죽고 가문도 문을 닫고 딸마저 왕비 지위에서 쫓겨나게 만들었던 말인가?

아마도 김흠돌은 신문왕 즉위 초 앞으로 태어날 자신의 외손자가 태자로 책봉되기 어려운 정치적 상황에 놓였을 것이다. 무엇이 正妃가 낳을 왕자를 태자가 되지 못하게 막은 것인가? 그 한 가능성은 신문왕이 태자 시절에 태자비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았다고 상정하는 것일

28) 죽지랑은 김흠돌의 난에 직접 연루되지는 않은 것 같다. 그것이 효소왕대까지 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그러나 김흠돌의 난에 직접 참여한 여러 장군들과 함께 전장에 나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김흠돌의 난에 직접 연루된 고위 장군들은 대체로 김흠돌과 친인척 관계로 묶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화랑세기』에서 그 대략을 뽑아 보면 다음과 같다. 652년에 26세 풍월주에 오른 진공은 흠돌의 누이인 흠신을 처로 삼았다. 풍월주가 되자 흠신을 화주로 삼았고 처남인 흠돌을 부제로 삼았다. 흠돌은 656년에 27세 풍월주가 되었다. 흥원은 흠돌의 둘째 부인인 언원의 오빠로서 흠돌과 언원의 자인 674년에 31세 풍월주에 오른 흠연의 외숙이자 병부이다. 흠돌과 흥원은 처남 매부 사이이자 사돈이다. 병부령 軍官은 흠돌의 사돈이다. 군관의 아들 天官이 667년부터 8년간 30세 풍월주에 있었는데 天官이 흠돌의 사위이다. 아버지 군관과 함께 자진을 강요당한 嬖子 1명은 아마도 천관일 것이다. 이들은 모두 (12)에서 본 대로 문무왕 8년(668년)의 대고구려 전쟁에 김유신 장군의 휘하로 나란히 참전하였다. 신문왕 즉위에 반대했을 수도 있는 세력의 윤곽을 알 수 있다. 자의왕후는 역대 풍월주를 역임하여 병권을 쥐고 있는 강력한 화랑 출신 군부 세력을 그대로 두고서는 허약한 아들이 제대로 된 왕 구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문명왕후와 문무왕이 세상을 뜨자 말자 이들을 제거하였을 것이다. 더욱이 흠돌은 처녀 시절의 자신을 첩으로 삼으려 하였고, 문명왕후와 의논하여 흠돌의 처제인 신평을 태자비로 들여 자의가 태자비가 되는 길을 막으려 한 인물이었다. 일연선사는 이 사건이 국가 흥망 성쇠와 관련되어 있다고 본 것이고, 그 사정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익선의 죽지랑 모욕 사건’이며, 그 사건으로 죽지랑과 돈독한 인연을 맺은 실오가 죽지랑 사후에 지은 만가 모죽지랑가가 그 시대의 민심에 크게 울림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수 있다. 아니, 그것 외에는 앞으로 태어날 왕자의 앞날을 막는 결정적 요인이 있을 수 없다. 김흠돌은 어쩌면 조선 선조 시 장성한 임해군과 광해군이 있는데 새로 계비로 들어간 인목왕후가 뒤늦게 영창대군을 낳아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김제남이 처했던 것과 같은 상황에 놓였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필자의 이 방정맞은 추리는 정확히 들어맞고 있었다.

4.3. 신목왕후는 태종무열왕의 외손녀이다

김흠돌에게서 외손자가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갈 만한 적대적 위치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제1 후보로는 적어도 김흠돌의 딸을 이어 왕비가 되는 신목왕후의 아버지인 金歆運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최소한 김흠운은 김흠돌과 반대되는 위치에 설 만한 세력이다.

김흠운은 누구인가? 이제 다시 놀라운 신라사가 눈앞에 펼쳐졌다. 김흠운은 『삼국사기』 ‘열전’에 나온다. ‘열전’에 나오는 그 金歆運이 신목왕후의 아버지 김흠운이라면 김흠돌의 난이 제기하는 이상한 문제가 해결된다. (18)은 『삼국사기』 ‘열전’ 金歆運 조에서 관련된 부분을 인용한 것이다.²⁹⁾

- (18) a. 金歆運은 신라 내밀왕(내물왕)의 8세손으로 그 부친은 迺滄 達福이다.
 b. 김흠운은 어려서 화랑 문노의 문하에서 놀았는데 ...
 c. 태종대왕 2년(655년)에 왕은 백제가 ... 변경을 침범하므로 ... 김흠운을 낭당대감으로 삼으니 ...陽山 아래 진을 치고 助川城(현

29) 『삼국사기』 ‘신라 본기’ 태종무열왕조에는 김흠운의 기록이 없다. 그러나 태종무열왕 2년(655년)에 ‘고구려가 백제, 말갈 등과 더불어 ... 쳐들어 와서...’라는 기록은 있다. 이 전쟁에서 김흠운이 전사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 해에 태종무열왕은 어린 왕녀 智照를 외숙부인 연만한 대가간 김유신에게 시집보냈다. 대표적 정략 결혼인 것이다.

재의 옥천으로 나가 치려고 … 백제군은 밤을 이용하여 … 갑자기 쳐들어 오므로 … 大畝 諶知가 ‘지금 적들은 어두운 속에서 일어나 … 황차 공은 신라의 귀퉁이며 대왕의 사위(大王之半子) 이므로 만약 적병의 손에 죽는다면 백제는 이를 자랑으로 여길 것이니 우리로서는 큰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하니 … 김흠운은 말하기를 ‘대장부가 이미 몸을 나라에 맡겼거늘 … 어찌 감히 명예를 구하리오’ 하며 꺾꽂이 그 자리에 서서 … 몇 명을 쳐 죽이고 자기도 전사하였다. … 少驕幢主 寶用那는 … ‘그는 뼈가 귀하고 세도로 영화로우므로 …’

- d. 태종왕은 이 말을 듣고 슬퍼하며 흠운, 穢破에게는 一吉浪 벼슬을 추증하고 …
- e. 이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陽山歌를 지어 부르며 이를 슬퍼하였다. …
- f. 김대문은 말하기를 ‘어진 재상과 충성스러운 신하가 여기에서 뻗혀 나오고 훌륭한 장수와 용감한 군사가 이로부터 생겨 나온다’고 한 것은 곧 이를 말하는 것이다.

김흠운을 내물왕의 8세손이라고 했으니 그는 왕실의 먼 친척이다. 그 아버지가 잡찬 달복이라 한 점이 특히 주목된다.³⁰⁾ 대왕의 사위라고 했으니 그는 태종무열왕의 사위이다. 그러면 김흠운의 딸인 신목왕후는 태종무열왕의 외손녀가 되고 문무왕의 생질녀가 되는 셈이다. 신문왕과 신목왕후는 내외종간이다. 즉, 신목왕후의 어머니가 신문왕의 고모인 것이다.

30) 이 『삼국사기』 ‘열전’에는 김흠운의 부가 달복이다. 『화랑세기』에는 달복이 김유신 장군의 누나인 정희의 남편이고 그 아들이 김흠돌이라 하였다. 김흠운과 김흠돌은 형제이면서 김유신 장군의 생질이다. 나아가 김흠운은 태종무열왕의 사위가 되었고, 김흠돌은 김유신 장군의 사위가 되었다. 김흠운은 처가는 왕실이고 외가만 김유신 장군 집안이지만, 김흠돌은 처가도 외가도 김유신 장군 집안이다. 하나는 왕실로 장가들고, 다른 하나는 김유신 장군 집안으로 장가들어 그 딸들이 권력 투쟁의 핵이 된 것이 김흠돌계 화랑도 출신 귀족들의 운명을 가르는 분기점이 되었다. 일률적으로 왕실이다, 가야계다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신라사는 큰 파벌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친소 관계나 혼맥 관계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면서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흠운은 신문왕의 고모부이다. 태종무열왕은 김흠운의 죽음을 슬퍼하여 흠운에게 一吉滄의 벼슬을 추증하였다. 신문왕후 부친 김흠운의 관등이 일길찬인 것으로 보아도 이 흠운과 신목왕후의 아버지 김흠운은 동일인이다.

태종무열왕이 큰사위 김품석을 대야성에서 잃고 아껴 마지않았을 작은 사위 김흠운, 젊은 나이에 전사한 사위, 그 사위의 아내인 청상에 홀로 된 딸, 그 불쌍한 딸이 데리고 있는 외손녀(신목왕후)에 대한 태종무열왕의 애끓는 듯한 절절한 사랑이 손에 잡힐 듯이 눈앞에 다가왔다. 태종무열왕은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이 외손녀에게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로부터 13년 전인 선덕여왕 11년(642년), 딸 고타소와 사위 김품석이 대야성에서 毛尺과 黔日의 배반으로 죽었을 때 ‘기둥에 의지하여 서서 종일토록 눈도 깜짝하지 않고 사람이나 사물이 앞을 지나가도 알지 못하더니(倚柱而立終日不瞬人物過前而不之省)’, ‘슬프도다. 대장부로서 어찌 백제를 능히 삼키지 못하겠느냐(嗟乎大丈夫豈不能吞百濟乎)?’ 하고 고구려에 군사를 빌리러 몸소 찾아갔던 그였다. 태종무열왕은 백제와의 전쟁에서 두 사위와 딸 하나를 잃고, 또 하나의 청상이 된 딸이 젓먹이 외손녀를 기르고 있는 참혹한 현실과 마주하였던 것이다.

그런 태종무열왕이 돌아가시고 그 후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 조실부한 외손녀의 외로운 처지를 가슴 아파한 태종무열왕은 그 외손녀를 특별히 배려하였을 것이고 자신 사후의 일을 아들 문무왕에게 신신당부하였을 것이다. 필자에게는 태종무열왕이 문무왕에게 저 아이를, 네 누이의 저 불쌍한 딸을, 네 딸 같이 대우하라는 말이라도 했을 것 같다. 문무왕이 아버지의 그 뜻을 이어 받는 길은 무엇일까? 며느리로라도 들어야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태종무열왕 김춘추가 아꼈던 외손녀라면 문무왕도 누나거나 여동생의 딸인 이 생질녀(신목왕후)를 특별 관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그 관리 책임은 문무왕비인 자의왕후에게 맡겨졌을 것이다. 따라서 자의왕후는 홀로 된 시누이와 가깝게 지내야 했을 것이고 자주 그의 집에 갔을 것이고, 또 홀로 된 시누이와 그 딸을 자주 왕궁으로 불러들여 위로했을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이 시누이와 올케의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었을 것이다. 그 시누이의 딸이 신목왕후이고 올케의 아들이 신문왕이다.

자의왕후의 보호 아래 어릴 때부터 함께 놀던 태종무열왕의 손자(신문왕)와 외손녀(신목왕후) 사이에 아무 일이 없었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아마도 이 두 사람, 태종무열왕의 손자와 외손녀 사이에 사랑이 싹 텄을 것이고 그 사랑은 효소왕의 즉위 시 나이가 6살보다는 훨씬 더 많아야 한다는, 앞에서의 필자의 추리에 한 줄기 환한 빛을 던졌다. 효소왕은 모든 기록에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신문왕이고 어머니가 신목왕후이다. 만약 이들 사이에서 효소왕이 태어나서 신문왕이 즉위하던 해에 상당한 나이로 자라 있었다면 당장 대두되는 문제는 차기 왕위 계승권이 어디로 가는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이 일을 정리할 사람은 자의왕후밖에 없다. 이를 조정할 절대 권위를 가진 문무왕이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자의왕후는 당연히 시아버지 태종무열왕이 아꼈고 자신이 딸처럼 보살렸을 그 생질녀의 편을 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그 생질녀와 정이 들어 그 사이에서 아들까지 둔 신문왕의 뜻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자신의 아들 신문왕이 이미 시아버지 태종무열왕의 외손녀와 정이 들어 아들까지 두었는데, 아직 아들이 없는 김흠돌의 딸인 왕비에게 마음이 쓸렸다고 하기는 어렵다.

김흠돌이 655년에 전사하였으므로 신목왕후는 655~656년 이전에는 태어났어야 한다. 『삼국유사』의 기록대로라면 효소왕이 태어난 해는 676년이다. 신목왕후가 21살쯤에 낳은 아이이다. 681년에 신문왕이 즉위하였으므로 효소왕은 그때 6살이다. 신목왕후와 신문왕은 683년에 혼인하

였다. 따라서 혼인 시에 신목왕후는 28살 이상이어야 하고, 효소왕은 8살이 되어 있어야 한다.

4.4. 김흠돌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김흠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쟁터에서의 용감한 죽음으로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있는 태종무열왕의 사위이자 문무왕의 매부, 그리고 신문왕의 고모부인 고 김흠운의 명성에 맞서서, 태종무열왕의 외손녀인 김흠운의 딸과 그 딸이 이미 낳은 것으로 추정되는 태종무열왕의 외외증손자이자 증손자인 효소왕을 물리치고, 태어나지도 않은 자신의 외손자에게로 왕위를 계승시키는 지난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비참하게 납작 엎드려 사는 길은 있었겠는가? 없다. 외손자가 태어난다는 보장도 없고 설사 태어난다고 해도 이복형제와 왕위를 다투어야 하고 항상 모반하지 않나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즉위한 지 11년 후에 신문왕이 승하하고,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효소왕이 또 10년 후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는 성덕왕이 더욱 이상한 문제를 제기한다. 『삼국유사』의 ‘대산 오만 진신’ 조와 ‘명주 오대산 보길도태자 전기’ 조에서는 오대산에 형 竇叱徒太子와 함께 가 있던 효소왕의 동모제 효명태자가 있었는데, 淨神王(=신문왕)의 태자가 왕위를 다투다가 26살로 세상을 떠나자, 이 효명태자가 서라벌로 와서 왕위에 오르니 이 이가 성덕왕으로 그때 나이가 22살이라고 한다. 효소왕이 10년 재위하고, 신문왕이 11년 재위했으니, 그의 아버지 신문왕이 즉위하던 681년 그 때에는 성덕왕도 태어나 있어야 한다. 『삼국유사』

의 세주로부터 추정하면 그는 680년생이고 신문왕은 681년에 즉위했으니 그때 2살이다. 신문왕과 신목왕후는 683년에 결혼했으니 그때는 4살인 것이다. 그런데 또 그의 형도 있다. 寶叱徒太子다.

그러면 신문왕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신목왕후와의 사이에 최소 3명의 아들을 두고 있는 셈이다. 즉위년 681년을 기준으로 보면 차례로 6살 효소왕, 4살(?) 寶叱徒太子, 2살 성덕왕이다. 내외종간에 사랑하여 어찌다가 효소왕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예 부부처럼 東宮에서 같이 살았다고 보아야 이해될 만한 사정이다.³¹⁾

이 상황에 놓인 김흠돌의 딸은 어떠한가? 하루도 눈물 없이는 못 보내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왜 이렇게 무리한 결혼을 했을까? 현재의 기록으로는 정명태자와 김흠돌의 딸이 혼인한 시기는 알 수 없다. 그러므로 김흠돌의 딸이 언제 신목왕후의 존재를 알았는지, 또 효소왕의 출생 전에 혼인했는지 후에 혼인했는지도 알 수 없다.³²⁾ 효소왕 출생 전에 혼인하였다면 그런 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느낌상으로는 이미 정명태자가 고종사촌인 신목왕후와 정이 들 대로 들어 아이까지 둔 상태에서 이 결혼이 강제 추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누가 추진했을까? 김흠돌 자신일 것이다.³³⁾ 그렇다면 정략결혼이었

31)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의 동궁은 문무왕 19년(679년)에 창건하였다. 『화랑세기』에는 680년 경 후가 이에 昭明宮에게 명하여 동궁으로 들어가게 하고 善明宮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하여 이 동궁 창건도 혼인 전의 신목왕후와 그 아들들에 관련된 일이었음을 추정하게 한다.

32) 『화랑세기』에는 ‘흠돌은 아침으로 문명태후를 섬겼다. 이에 그의 딸이 유신공의 외손이므로 태자에게 바쳤다. 태자와 모후는 흠돌의 딸을 좋아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소명태자는 무열제의 명으로 흠운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기로 하였으나 일찍 죽었다. … 마침내 이공전군을 낳았다.’로 되어 있다. 여기서 ‘이에 앞서[先是]’는 ‘이보다 앞서’라는 뜻으로 ‘김흠돌이 딸을 태자에게 바치기 전에’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 부사어가 ‘… 일찍 죽었다[早卒]’까지 걸리는지, ‘마침내 이공전군을 낳았다[遂生理恭殿君]’까지 걸리는지 알 수 없다.

33) 『화랑세기』에 의하면 이미 문명왕후와 의논하여 범민의 태자비로 김유신 장군의 딸이자 자신의 처제인 신평을 들이려 하다가, 태자가 받아들이지 않고 태종무열왕이 자

을 가능성도 크다. 아버지가 강압적으로 밀어붙인 일이 아니라면 누가 이리 될 줄 뻔히 알면서 그곳으로 시집가려 하겠는가? 더욱이 다음에 왕이 될 정명태자이고 왕위 계승권을 두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벌이게 될 것이 확실한데 그곳으로 누가 시집을 가려 하겠는가? 또 딸을 그곳으로 출가시키려고 하는 아버지는 어떤 사정에 의하여 얼마만한 각오를 하고 이 일을 추진하였을까?

이미 김흠돌의 딸과 결혼한 후에 정명태자가 신목왕후와의 사이에서 효소왕을 낳았다면 김흠돌은 앞으로 태어날 외손자를 위하여 왕위를 지키려 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효소왕 출생 후에 김흠돌의 딸이 정명태자와 혼인했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서도 했다면 본격적으로 효소왕으로부터 앞으로 태어날 외손자를 위하여 왕위를 빼앗아 올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을 모르고 혼인했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이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당당히 정비임을 내세워 자신의 앞으로 태어날 외손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어쩔 수 없다.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김흠돌은 신문왕, 자의왕후, 신목왕후, 이공(효소왕), 그들을 상대로 목숨을 건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인가? 현직 왕과 모후, 현직 왕 할아버지의 외손녀, 그리고 바로 전 왕의 손자인 효소왕이다. 그야말로 핵심 왕실인 것이다. 길이 없었다. 자신에게 힘이 있다면 이 모두를 뒤엎고 자신이 왕이 되는 길 외에는 살아나갈 길이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던 것이 바로 김흠돌이었다. 그런데 그에게 막강한 힘이 있었다. (12a, b)에서 보았듯이 화랑도를 배경으로 한 김유신 장군의 부하들이 과거 그와 함께 전쟁을 치르

늘의 현숙함을 사랑하여 태자비로 삼는 바람에, 실패하고 후궁으로 들인 바 있는 김흠돌이다. 충분히 자신의 딸을 정명태자의 비로 들이는 일을 문명왕후와 함께 무리하게 추진할 만한 사람이다. 문명왕후 밑에서 시집살이하였을 자의왕후가 태자비인 김흠돌의 딸을 좋아할 리가 없고 이미 고종사촌 누이와의 사이에 정이 깊어 든 정명태자가 태자비를 좋아할 리가 없다.

며 세력을 형성한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흠돌의 난은 폭발하였다.

신문왕 즉위 시는 신목왕후가 이미 효소왕, 竇叱徒太子, 성덕왕의 세 아들을 낳은 뒤였다. 그리고 이 시기는 권력의 중심이 자의왕후와 신문왕에게로 넘어와 있었다. 문명왕후 재세 시 힘을 떨치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던 김유신 장군 생시에는 왕실을 압도할 정도로 권세를 누리던 김흠돌의 집안이 기울어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를 보살피 주던 문명왕후와 문무왕이 돌아가시자 이제 신문왕은 자기의 외가를 챙겨야 하고, 둘 사이에 아들을 셋씩이나 둔 김흠운의 딸인 고종사촌 누이 신목왕후를 돌보아야 했다. 그리고 왕위 계승 문제도 이미 정이 든 큰 아들 효소왕으로 정하려 했을 것이다.

김흠돌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목숨을 건 모험을 감행한 것이다. 그가 살아남는 길은 자신이 최고 권력자가 되는 길밖에 없었다. 자신이 왕위를 노리거나 자신이 조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왕을 바꾸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날, 어차피 비참하게 살거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임을 깨닫고, 어쩔 수 없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말았다.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다니... ‘運命’이라는 말은 이런 경우에 적합한 말이다.³⁴⁾

34) 『화랑세기』에는 김흠돌이 선품과 보룡의 딸인 자눌(자의이 태자비)가 되기 전에 첩으로 삼으려 했으나 보룡이 막은 일, 이 일로 인하여 자의를 험담하였는데 후일 태종무열왕이 자의를 태자비로 삼은 일, 이때 김흠돌이 문명왕후와 의논하여 태자비로 김유신 장군의 딸 신광을 들이려 하였으나 태자가 받아들이지 않아 후궁으로 들인 일 등으로 인하여 자의왕후에게 지은 죄가 무서운 김흠돌이 자의왕후가 두려워 난을 일으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난의 원인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다. 또 『화랑세기』는 자의왕후의 여동생 운명의 남편인 김오기(김대문의 父)가 김흠돌의 난을 진압하려 북원(원주)으로부터 와서 호성장군이 되는데 이 명은 자의왕후에게서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다. 결국 문명왕후의 생시에는 시어머니께 효도하고 조심하던 자의왕후가 문명왕후 사후에는 친정 세력과 손잡고, 문명왕후의 권세를 등에 업고 위세를 부린 김흠돌을 제거하는 것이 신문왕 즉위 시의 대체적인 정국이다. ‘삼도 중에는 이로써 죽임을 당한 자가 매우 많았다[三徒以此誅戮者甚多].’고 한다. 『화랑세기』에는 김흠돌이 신문왕의 배다른 동생인 仁明殿君을 응립하려 했으나 사실은 자신이 왕위에 오르려

이 난을 진압하는 세력은 어떤 세력일까? 왕의 직속 관할 세력을 제외하고 지방에 주둔하는 군대를 불러들여야 할 상황이 되어서 전방 군대를 서울로 불러들여야 한다면 누구에게 그 일을 맡겼을까? 필자의 추리로는 이 김흠돌의 난을 진압하는 데 동원될 수 있는 제1 후보 부대는 자의왕후의 친정 세력, 신문왕의 외가 세력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만약 이 난을 진압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들은 공신이 되어 신문왕 이후 새로운 절대 권력으로 등장할 것이다. 그는 누구일까? 『삼국사기』는 그가 신문왕의 아들인 성덕왕의 병부, 신문왕의 손자 효성왕의 병부로서, 두 번씩이나 폐비 사건을 일으키며 자신의 딸을 왕비로 들이는 順元이었음을 증언하고 있다.³⁵⁾

4.5. 모죽지랑가의 정치적 배경

이것이 김흠돌의 난에 대하여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토대로 필자가 30년 동안 조금씩 발전시키며 지어내어 학생들에게 가르쳐 온 虛構의 통일 신라 사회의 모습이다. 신문왕, 효소왕, 성덕왕, 효성왕, 경덕왕, 혜공왕 대에는 귀족들 사이의 분열과 암투 속에 나라가 기울고 백성의 삶이 피폐하여, 드디어 혜공왕[성덕왕의 손자]이 고모부인 선덕왕[김양상, 성덕왕의 사위]에게 시해되고 왕위를 빼앗기는 김씨 왕조 최악의 비극을 연출하게 된다.³⁶⁾ 물론 이 뒤부터 숙부가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되는 등 骨肉相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전형적인 승자의 기록이라 할 것이다.

35) 『화랑세기』에는 순원이 자의왕후의 동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는 문무왕의 차남이고 신문왕의 외삼촌이 된다. 신문왕, 효소왕, 성덕왕, 효성왕, 경덕왕에 걸쳐 최고의 권세를 누리는 권력 실세는 김순원으로 파악된다.

36) 『삼국사기』는 이 사건에 대하여 이찬 志貞이 모반하여 상대등 金良相이 이찬 敬信과 더불어 지정을 주살하였다고 하고, 이때 왕은 후비와 함께 난방에게 해를 당한 바 되었다고 하였다. 그 후에 聖德王의 사위이고 혜공왕의 고모부인 김양상이 즉위하여 宣德王이 되었다. 그는 5년 남짓 재위하였다. 무상한 일이다. 그리고 그 뒤에 왕이 된

殘은 계속된다.

자의왕후와 신문왕은 김흠돌과 진공, 흥원 등 그 당시의 화랑도 지도층을 난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주살하고 병부령 군관과 그 적자를 자진케 하였으며 김흠돌의 딸인 왕비를 폐비시켰다. 이들은 모두 김흠돌과 혼맥으로 연결된 인척들이다. 그리고 이 난을 이유로 자의왕후는 화랑도를 폐지하였다. 그 후 부활된 화랑도는 풍월주 제도를 없애고 득도하여 國仙으로 남는 것만 허락하였다. 이제 화랑도는 호국무사가 아니라 국선으로 그룹 위에 노니는 존재로 전락하였다. 사귀어서 인재를 알아보아 큰 인물로 양성한다는 화랑도의 본질이 변한 것이다. 이로 하여 신라 후기는 인재 양성의 길이 막히고 외척을 중심으로 왕실의 측근들이 국가의 운영을 독점하게 되었다. 이 일은 국가 흥망성쇠와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다.

김흠돌과 왕비 제거로부터 3년 후 최소 28살이 된 신문왕의 고종 사촌 누이, 태종무열왕의 외손녀 신목왕후는 당당하게 왕비로 월성에 금의입성하게 된다. 이 史實이 『삼국사기』의 신문왕 혼인 시 기록에 약간의 흔적을 남기고 있고, 『삼국유사』의 효소왕, 성덕왕의 즉위 시 나이 속에 레고 조각을 맞추는 키로 남아 있다.

이렇게 왕실[신문왕, 신목왕후, 자의왕후]가 화랑도 출신 군부 귀족들을 탄압하는 것으로 비춰진 이 사건이 그 당시 식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여졌을까? 김유신 장군의 후예 군부 출신 귀족 세력들은 이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지녔을까? 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별로 공도 없이 왕의 큰 아들이란 이유만으로 왕위에 오르는 신문왕의 정통성을 순순히 인정하려 하였을까? 효소왕 중기 695년쯤에 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되는 죽지랑은 어떤 처지에 놓였으며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초상날 장례를 치르거나 대상 날 그를 추모하는 실오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 그 답은 자

사람은 내물왕 12세손인 元聖王(金敬信)이다. 『삼국유사』는 해공왕이 ‘마침내 선덕과 김양상(敬信의 잘못)에게 시해당했다[終爲宣德與金良相(敬信의 잘못)所弑].’고 하였다.

명하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 하에 화랑도 출신 장군으로 김유신 장군, 김흠돌 등과 함께 활동하였던 죽지랑은 문무왕 사후 신문왕 즉위 시의 김흠돌의 난의 영향으로 폐지되었다 부활된, 거세된 화랑도의 잔재 속에 서서히 힘을 잃어 갔을 것이다. 그리고 효소왕 때쯤에는 왕년의 낭도였던 실오를 관할하지도 못한 채 익선 아간에게 징발 당하였고 그에게 휴가조차 배려해 주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을 것이다.

이 사건이 알려지고 조정에서 후속 배려를 하였지만, 민심은 아직도 김유신 장군에 대한 절대적 존경과 동정 속에 그 후예들이 수모를 겪는 정치적 상황에 대하여 비판적이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죽지랑의 초상 날 장례식이나 大祥 날을 맞아 탈상을 하는 儀式에서 ‘익선의 죽지랑 모욕 사건’으로 죽지랑과 특별한 관계에 있어 낭도들의 대표로 선택된 실오가 지어 부른 慕竹旨郎歌는 우리 시대의 ‘임을 위한 행진곡’처럼 백성들의 심금을 울리는 노래로 유행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일연선사는 이 노래가 어떤 국가적 변란과 관련되고, 국가 흥망성쇠와 연결되는 노래라고 보아 『삼국유사』 그것도 기이편에 실었을 것이다.³⁷⁾

이제 신라사의 큰 의문점 하나가 해결되었다. 김흠돌의 난이야말로 통일 신라 최대의 수수께끼라 할 만한데 모죽지랑가의 창작 배경을 추적하

37) 필자는 20년 이상 국문학과에서는 『삼국유사』를 주 텍스트로 하여 허구적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고, 사학과에서는 『삼국사기』의 역사적 진실(?)을 토대로 『삼국유사』의 신비로운 허구적 비유들이 사실에 가깝게 해석되도록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이상적인 인문학적 강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그 생각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삼국사기』는 그러한 근거를 제공하기에는 기록이 소략하고 정보가 많이 누락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최소한 효소왕의 나이에 관한 한 『삼국사기』보다 『삼국유사』가 더 정확한 기록이라는 것을 논증하였다. 그리고 모죽지랑가와 관련하여 『삼국유사』가 정확한 기록을 보이고 있는데, 『삼국사기』는 편린을 주위 모으듯 훤히 보이는 신문왕과 신목왕후, 그리고 그들의 세 아들의 기록에 관한 한 누락이 심하다. 그리고 해공왕의 죽음에 대한 기록도 이제는 『삼국유사』를 믿게 되어 고모부에게 시해되었다고 가르치고, 또 그러한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는 가운데서 이상과 같이 추리하여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가지고 있었다. 김흠돌의 난은 가장 적나라하게 삼국통일 후의 서라벌의 진면목을 보여 준다.

모죽지랑가는 이러한 정치적 배경을 뒤로 하여 신문왕의 11년 재위 후, 16살에 왕위에 올라 26살까지 왕위에 있는 효소왕대의 이야기이고 그때 지어진 노래이다. 문명왕후로 상징되는 문무왕의 외척 세력과 새로 즉위한 신문왕의 외척, 즉 자의왕후로 대표되는 왕실 귀족 세력 사이의 권력 교체와 관련되어 있고, 효소왕이나 성덕왕의 외척 세력[자의왕후의 동생 김순웁의 대두와도 관련되어 있다.

5. 결론

5.1. 죽지랑의 初喪 날이나 大祥 날 지은 輓歌이다

慕竹旨郎歌는 죽은 죽지랑을 애도하고 추모하는 儀式에서 輓歌로 지은 것이다. 창작 시기는 죽지랑 사후 初喪 날 장례식 때이거나 大祥 날의 탈상제 때라고 필자는 추정한다.

이 노래는 『삼국유사』 ‘기이편’에 실려 있다. 이로부터 필자는 이 노래의 내용상의 성격을 국가 興亡盛衰와 연결짓지 않을 수 없었다. 실오가 죽지랑의 사후 초상 날 장례식이나 대상 날 탈상제에서 이 노래를 지어 부른 후 이 노래는 찬기파랑가처럼 널리 알려졌을 것이다. 신문왕 즉위 시 김흠돌의 난으로 많은 통일 전쟁 참가 장군들이 주륙 축출되고 결국 화랑도가 폐지되는 정국에서, 화랑도 출신 군부 귀족 세력과 왕실 직계 세력 사이의 충돌이 국가 기틀을 흔드는 것으로 우려한 민심이 이 노래

의 眞價를 떠받치고 있었을 것이다. 문명왕후로부터 자의왕후, 그리고 자의왕후로부터 신목왕후로 권력의 중심축이 이동하면서 왕실 직계의 권력 독점이 국가의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는 데 대한 우려가 표출된 것이다.

5.2. 향찰 해독

이 노래의 향찰에 대한 해독은 김완진(1979, 1980, 1985)에서 현재의 국어학계의 수준으로는 거의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하였고, 해결하지 못한 이상한 것은 앞으로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한 영원한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5.3. 문명왕후와 자의왕후의 권력 교체기 갈등을 반영한다

이 노래의 창작 동기와 시기, 그리고 眞價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효소왕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효소왕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 신문왕대의 김흠돌의 난에 대하여 이해해야 한다.

효소왕의 출생에 대하여 『삼국사기』는 분명한 기록을 보이지 않는다. 다만 ‘신문왕 7년(687년) 2월, 원자가 탄생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원자가 효소왕이라면 그는 6살이 된 692년에 왕위에 올라 16살까지 재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삼국유사』의 ‘臺山 五萬 眞身’ 조의 細注 속에는 ‘천수 3년 임진(692년)에 왕위에 올랐는데 그때 나이 16세이며 장안 2년 임인(702년)에 죽었으니 나이 26살이었다. 성덕왕이 이 해에 왕위에 올랐으니 나이 22살이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만파식적을 얻은 시기의 태자 효소왕의 신통력, 정공의 버드나무 절단 방해 사건과 혜통의 왕녀 치료 등이 도저히 687년에 태어났다는 기록을 믿을 수 없게 하였다.

이 두 기록 가운데 『삼국사기』의 기록은 그 원자가 효소왕이라면 신빙성이 떨어지고, 『삼국유사』의 기록이 오히려 믿을 만하다.

신목왕후의 부친 김흠운은 『삼국사기』 열전의 金歆運과 동일인이다. 태종무열왕의 사위이고 백제와의 전쟁에서 전사한 뒤에 一吉濱으로 추증되었다. 신목왕후는 태종무열왕의 외손녀이다. 김흠운이 655년에 전사하였으므로 신목왕후는 655~6년 이전에 태어났다.

김흠들은 딸을 정명태자에게 바쳤다. 이 결혼 자체가 정략결혼일 가능성이 있다. 김흠들의 난은 왕위 계승권을 둘러싼 정쟁이 빚어낸 갈등이다. 김흠들은 신문왕 즉위 시 앞으로 태어날 외손자가 태자로 책봉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신문왕에게는 태자 시절 고종사촌 누이인 신목왕후와의 사이에 난 아들 효소왕이 있었기 때문이다.³⁸⁾

자의왕후와 신문왕은 김흠들과 흥원, 진공 등 화랑도 지도층을 난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주살하고, 병부령 군관과 그 아들을 자진케 하였다. 왕비도 왕비가 된 해에 폐비되었다. 이 난을 이유로 자의왕후는 화랑도를 폐지하였다. 죽지랑도 이 때 불우한 처지가 되었을 것이다. 그 후 부활된 화랑도는 풍월주 제도를 없애고 득도하여 國仙으로 남는 것만 허락되어 본질이 변하였다.

만파식적 설화에서 용이 한 말, 두 대나무가 합쳐야 소리가 날 수 있으며, 문무왕과 김유신 장군이 뜻을 합쳐 저로 하여금 대왕께 바치게 하였다는 말이 예사롭지 않다. 문무왕으로 대표되는 왕실 직계 세력과 김유신 장군으로 대표되는 화랑도 출신 군부 귀족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이 민심이었을 것이다.

38) 『화랑세기』는 ‘昭明太子는 흠운의 딸을 태종무열왕의 뜻에 따라 아내로 맞이하기로 하였으나 일찍 죽었다. 흠운의 딸이 스스로 소명제주가 되기를 원하여 자의왕후가 허락하였다. 이것이 소명궁이다. 태재[정명]가 소명궁을 좋아하여 마침내 理恭殿君을 낳았다’고 하였다. 이에 관하여 『삼국사기』에서는 편린도 볼 수 없지만 관련 기록이 다 의심스럽고, 『삼국유사』에서는 온갖 기록이 다 이와 부합하고 있었다.

신문왕은 할아버지, 아버지와 함께 삼국통일의 위업을 이룬 화랑도 출신 군부 귀족들의 공적에 심리적 부담을 지고 있었을 것이다. 김흠돌의 난을 쉽사리 넘길 수 없는 근본 까닭이다. 지도자가 모자라면 아래 사람들이 힘든 법이다. 삼국통일을 이룬 화랑도 출신 귀족들은 신하들의 공과 신하들에 대한 백성들의 신망을 두려워하고 시기하는 못난 군주와 그 어머니를 만난 것일 수도 있다.

참고문헌

김완진, 「三句六名에 대한 한 가설」, 『십악 이승녕 선생 고회기념 국어국문학논총』, 탑출판사, 1977.

_____, 「모죽지랑가 해독의 고구」, 『진단학보』 48호, 1979.

_____, 『향가 해독법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0.

_____, 「모죽지랑가 해독의 반성」, 『선오당 김형기 선생 팔절기념 한국어학 논총』, 장학사, 1985.

_____, 『향가와 고려가요』,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김준영, 『향가문학 개정판』, 형설출판사, 1979.

김태식, 「‘모왕’으로서의 신라 신목태후」, 『신라사학보』 22호, 신라사학회, 2011.

남풍현, 「국어 처격조사의 발달」, 『십악 이승녕 선생 고회기념 국어국문학논총』, 탑출판사, 1977.

박노준, 『신라가요의 연구』, 열화당, 1982.

서정목, 「慕竹旨郎歌의 형식과 내용, 창작 시기」, 『시학과 언어학』 28호, 시학과 언어학회, 2013a.

성호경, 「지정문자와 향가 해독」, 『국어국문학』 127호, 성호경(2008) 소수, 2000.

_____, 「사녀가의 성격 및 기원에 대한 고찰」, 『진단학보』 104호, 성호경(2008) 소수, 2007.

_____, 『신라 향가 연구』, 태학사, 2008.

신수식, 「모죽지랑가의 창작연대 연구」, 『국어국문학』 23호, 1961.

신종원, 「신라오대산사적과 성덕왕의 즉위배경」, 『최영희선생화갑기념 한국사학논총』, 탐구당, 1987.

안병희, 「국어사 자료로서의 ‘삼국유사」」, 『‘삼국유사’의 종합적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안병희(1992) 소수, 1987.

_____, 『국어사 자료 연구』, 문학과지성사, 1992.

양주동, 『증정 고가연구』, 일조각, 1942/1965/1981.

양희철, 『삼국유사 향가연구』, 태학사, 1997.

이기문, 『개정 국어사 개설』, 민중서관, 1972.

_____, 『국어 어휘사 연구』, 동아출판사, 1991.

이영호, 「신라의 왕권과 귀족사회」, 『신라문화』 22, 2003.

이종욱, 「삼국유사 죽지랑조에 대한 일고찰」, 『한국전통문화연구』 제2집, 효성여대 한국전통문화연구소, 1986.

이종욱, 『역주해, 화랑세기』, 소나무, 1999.

이희승, 「지명 연구의 필요」, 『한글』 1호 2, 1932.

조명기, 「원측의 사상」, 『진단학보』 16, 1949.

조병환, 「신목태후」, 『서강인문논총』 제29집,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小倉進平, 『郷歌及 吏讀의 研究』, 京城帝國大學, 1929.

〈Abstract〉

Motivation and Political Background of Mojookjirangga's Creation

Suh, Chung-Mok

This paper aims to discuss the motivation and the political background of the hyangga Mojookjirangga. This song is the elegy which Silo created for the funeral ceremony or the ending ceremony of mourning period of Jukjirang's death.

The King Hyoso of Shilla of the era related to this song succeeded the throne when he was 16 years old and died when he was 26 years old. Regarding on this fact, the record of the 'Samkookyosa' is correct and the record of 'Samkooksagi' is unbelievable. He was born between a grandson(King Shinmoon) of King Thaejongmuyeol and one of his granddaughters in law(Queen Shinmok).

Kim Heumoon, the father of Queen Shinmok is the same person recorded as Kim Heumoon in the 'Samkooksagi' Yeoljeon. He was one of sons in law of King Thaejongmuyeol, and died a glorious death on the battle field against Baekje in 655 A.D. He left an infant daughter. She married King Shinmoon in 683 A.D. when she was over 28 years old, and she gave births to three sons(King Hyoso, Prince Bojildo, King Seongdeok) before her marriage.

The existence of these sons was the cause of Kim Heumdol's rebellion who was the father in law of King Shinmoon. Because of this rebellion a certain group of nobles from Hwarangdo was killed or expelled, and the Hwarangdo system was abolished. This made the society of nobles of Shilla split, and affected the rise and fall of the nation. This song seems to be created by Silo in order to be used at the day of the funeral ceremony or ending ceremony of mourning period of the death of the noble Jookjirang, who had lived for about 15 years in obscurity in this political situation of expelling. It is the reason why this song is recorded in the 'Samkookyoosa' Kiiphyeon.

In 'Samkooksagi' Shilla Bongi, there might be some omissions and distortions of the records about this fact. On the contrary, 'Samkooksagi' Yeoljeon Kim Heumoon article gives a light to the historical fact of his three grandsons in law. This light illuminated the narrow path of this study to clarify the motivation and the political background of creation of the song Mojookjirangga.

Key words : Mojukjirangga, Political Background of Mojukjirangga, Motivation of Mojukjirangga's creation, Jukjirang, Deuko, Silo, King Hyoso, King Shimoon, Queen Shinmok, King Seongdeok, Kim Heumdol's rebellion, Kim Heumoon

접수일자 : 2013년 7월 10일

심사완료 : 2013년 7월 31일

게재확정 : 2013년 8월 7일